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0호 HYUNBULNEWS.COM 2025년 7월 23일(음력 6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불교계는 7월 16일 서울 구 일본대사관 평화로 소녀상 옆에서 '제170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광복 80주년 '수요시위'…"日, 사죄하라"

글 · 사진=김내영 기자

광복 80년이자 한일수교 60년이 되는 올해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생존자는 단 7명뿐(2025년 2월 기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고 절규가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도 거리에서는 진실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7월 16일 서울 구 일본대사관 평화로 소녀상 옆에서 '제170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관했다. 이날 수요시위는 광복 80년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고자 사노위를 비롯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성평등불교연대·불교환경연대·실천불교승가회·신대승네트워크·대한불교청년회·정의평화불교연대 등 불교단체들이 공동주관으로 대거 참여했다.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했으며, 착한목자수녀회와 영원한도움의수녀회에서도 자리를 함께했다.

사노위원 지철 스님은 인사말에서 80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은 조금도 진전이 없다고 개탄했다. 지철 스님은 "피해자의 숫자가 줄고,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거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며 "돌아가시거나 살아계신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 맺힌 절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지철 스님은 일본 정부를 향해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사과 없는 한일관계는 관광객 숫자로 위장될 수 없음을 양국 정부는 명심하라"며 조속한 사과를 촉구했다.

조계종 사노위 · 대불련 등 불교단체
7월 16일 제1709차 시위 공동주관
"할머니 한 맺힌 절규 조속히 해결"

이어 불교계 단체들이 차례로 발언에 나서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일문 스님은 올바른 역사를 세우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에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문 스님은 "누구보다 먼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에 앞장섰던 불교지만 오랜 역사만큼 진실로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불교단체가 함께 모여 구호를 외쳤던 만큼 불교가 신뢰를 회복하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힘 모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일본군 성노예제 패해자가 겪은 참혹한 현실은 전쟁과 식민 지배가 어떻게 여성의 삶을 수단화하고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욕심과 탐욕으로 짓밟은 인간의 존엄에 대해 진실된 마음으로 반성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의 고통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책임을 외면하는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진심 어린 사죄와 법적 책임으로 악연의 인연고리가 해소될 때까지 기억하고 배우고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옥복연 성평등불교연대 공동대표도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법적 책임과 진정한 사죄에 나서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핵폐수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다"며 "과거 역사를 참회하지 않고 또다시 핵폐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범죄를 서슴치 않는 일본 정부는 당장 핵폐수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자국 내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할 것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세계평화에 앞장설 것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한일외교 기준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 △한국 정부는 역사 부정과 혐오테러에 국가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날 사노위는 피해자 할머니와 희생자를 위한 추모기도를 통해 시민들과 역사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또 개똥이 어린이예술단의 '꼬마와 할아버지' '안아주기' 등의 노래 공연으로 인권과 존엄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광복절, 전국 사찰서 '국태민안' 기린다

종단협, 7월 17일 이사회서 결정
회원 사찰 8월 15일 오전 10시
33회 타종 · 공동선언문 발표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기념법회가 봉행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7월 17일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2층 회의실에서 '불기 2569(2025)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법회 계획을 논의했다. 일제강점기 국난극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상생과 국민화합을 구현하자는 취지다.

기념법회는 8월 15일 오전 10시, 회원종단 소속 전국 사찰에서 33번의 타종으로 시작된다. 이후 사찰 상황에 따라 순국선열에 대한 헌향, 추모묵념, 광복절 의미와 평화통일 염원하는 법문, 불교계 공동선언문 낭독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광복 80주년 공동선언문도 채택됐다. 공동선언문에는 "광복 80년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화합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고자 쉼없이 정진하겠다"는 불교계의 다짐이 담겼다.

이와 함께 종단협은 하반기 주요 일정도 확정했다. '제2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는 10월 18~20일 중국 북경 광제사에서, '한국불교지도자 몽골불교문화교류 사업'은 9월 16~20일 몽골 울란바토르 간단사 일대에서 진행된다.

특히 저출산, 종교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 진흥 학술 세미나는 11월 중순에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사회 현상과 불교 현황을 분석해 특성 있는 포교전략을 기반으로 실질정 방안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삼론종 총무원장 변경에 따른 임원·감사 변경 △정관 정비를 위한 개정위원회 구성 △전국 사찰 신도 수 현황 조사 등도 함께 논의됐다. 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집중호우에 따른 철저한 홍수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다사다난했던 상반기는 대통령 선출과 새 정추 출범 등 중대한 전환기가 있었고, 불교계도 주요 행사와 변화로 분주한 시기를 보냈다"며 "하반기에도 종단협 차원의 많은 일이 예정돼 있다. 불교 중흥 원력으로 종무에 매진해 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법향이 널리 퍼지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사장 상진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도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차 청소년교류대회 개최', '제17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 개최'를 안건으로 다뤘다. 김내영 기자

AI로 되살린 스님 독립운동가-① 비구 스님들의 독립운동 11면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 폭압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스님들의 활동을 조명한다. 첫 번째 순서로 비구 스님 일곱 분의 행적을 소개하며 스님들의 삶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AI(인공지능)로 복원한 현대적 이미지도 함께 싣는다.

특별기고-기독교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멈춰라 12면



지난 6월 20일 광주 남구, 대구 중구 등 8개 지자체는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를 공식 발족하고 기독교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한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이 특별기고를 통해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짚는다.



불교로 읽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② 5면

한국관광학회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대한불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조계종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2025년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공모전 9.1-10.31

참가기준
참가 자격 일반인, 대학(원)생, 연구자(내국인, 외국인),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관심있는 자
공모 부문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주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정신·관광 자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 탐색 관련 자유 주제
참가 형태 개인 또는 팀(공동연구는 최대 4인까지 허용)
참가 방법 논문 및 관련 양식 작성해서 이메일(tosok.kbc@gmail.com)제출
진행 방법 논문 제출 후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추진일정
사전접수 8월 31일까지 → 논문접수 9월 1일~10월 31일 → 1차심사 결과발표 11월 2주(11/9) → 본선 발표 및 우수논문 시상식 11월 3주(11/21)

논문시상

구 분	주제 부문별 시상 수		시상금	시상금 합계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대상	1팀	1팀	300만원	600만원
최우수상	1팀	1팀	150만원	300만원
우수상	3팀	3팀	80만원	480만원

※ 수상 기준 미달 시 수상자가 없을 수 있으며, 시상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모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게재 확인서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제출해야 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기획팀 : 02-2031-2026

접수·문의 한국관광학회, 2025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공모전 운영팀
이메일 : tosok.kbc@gmail.com
한국관광학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진우 스님, 학인에 "5초 멈추고 내려놓으라"

7월 14~15일 한국문화연수원서 학인수행프로그램

진우 스님, 15일 특별법문
자신 마음 집중 "결국 사라진다"
괴로움 관철 연습이 '선명상'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임은호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동량이자 종단의 보배인 학인스님들을 만나 교학과 수행에 더욱 정진할 것을 응원했다.

진우 스님은 7월 1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5년도 사찰승가대학 학인수행프로그램'에 동참한 학인스님을 대상으로 법문했다. '참된 수행자의 길, 학인 선명상'을 주제로 진행된 올해 학인수행프로그램은 7월 14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렸다. 사찰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학인스님이 교학과 수행에 선명상을 접목해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수행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법사로 나선 진우 스님은 출가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통해 해탈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또 학인스님들에게 직접 선명상 수행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인스님들에게 먼저 '왜 출가했는지'를 물은 진우 스님은 "괴로움의 속성을 살피자"고 말문을 열었다.

"기분이 좋고 나쁜 두가지 상반된 감정을 돌아 가는 것이 윤회"라면서 즐거움 총량과 괴로움 총량은 같음을 설명한 스님은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이 인과 원칙이고 현대과학으로 보면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며 "업의 원리를 알면 이 업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방법이 나온다. 업장소멸을 해야 괴로움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결국 사라진다"면서 자신의 마음이 평안한가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내가 괴로움이 사라졌을 때, 중도의 마음을 가질 때 정토가 된다"면서 "결국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했다"고 했다. 이어 '선명상'을 설명한 스님은 "괴로움을 없애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지만, 현대 시대 정서에 맞게 변화시켜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이에 선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면서 "선과 명상은 궁극적으로 같고, 명상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처리하는 법을 선명상을 통해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학인스님을 대상으로 한 법문에서 출가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통해 해탈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려는 욕심에서 빨리 벗어나고 괴로움을 관철하려고 연습하는 것이 선명상이라고 설명한 스님은 "5초 멈추고, 즉시 내려놓는 것이 선명상의 백미다. 순간적으로 내려놓는 방하착 명상을 하다보면 업장이 소멸되고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진다"면서 "출가해 집착을 해결하고 마음을 평안을 찾는데 선명상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의 법문에 앞서 학인스님들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마곡사까지 걷기선명상을 진행했다. 이어 학인 선명상 팀별 과제 수행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7월 14일에는 한산사 용성선원장이자 선명상위원회 자문위원인 월암 스님이 '참된 수행자의 길'을 주제로 법문했다. 또 동국대 WISE캠퍼스 아동인성교육연구소 소장 혜주 스님이 '학인 선명상과 세계 명상의 흐름과 현황'을 주제로 강의했다.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선명상위원회 위원장 금강 스님과 함께 선명상 실참 시간을 갖기도 했다.

조계종 청사 화재 복구 위해 십시일반

천태종 덕수 스님 기금 전달
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2000만원

지난 6월 10일 화재 피해를 입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스님들과 전국 사찰, 불자단체에서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 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7월 17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체험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 성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덕수 스님은 "한마음으로 잘 극복하고 조속한 복구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및 산하기관장 스님들도 7월 16일 2000만원을 전했다.

진우 스님은 "화재 피해 당사자들인데 기금을 모아줘 고맙다"면서 "스님들 성원으로 원만 복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안전하게 복구가 완료돼 입주할 때까지 성실하게 직무수행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현성정사(주지 본연 스님)와 세종 광제사(주지 현우 스님)는 7월 14일 1000만원씩을 각각 전달했다.

불교중앙박물관 봉사자들의 모임인 불교중앙박물관회(회장 고재경)도 1000만원을 전달하며 원활한 화재 복구를 염원했다. 특히 기금은 봉사자들이 불교 문화유산 매입을 위해 오랜기간 십시일반한 모연금에서 희사한 것이기에 의미가 크다.

진우 스님은 "봉사자들의 정신이 깃이 살아난 공간이 되도록 박물관을 잘 복구하겠다"면서 "자원봉사를 통해 전법하며 보시 중 가장 중요한 '법보시'를 하고 있다. 긍지를 갖고 봉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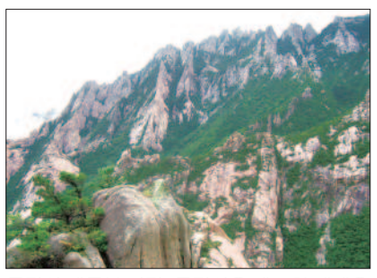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및 산하기관장 스님들은 7월 16일 총무원 청사 화재 피해 복구를 염원하며 2000만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반구대 암각화·금강산, 세계유산 등재 축하"

진우 스님, 7월 13일 환영 논평
"남북 유산 함께 등재 의미 커
금강산은 민족영산, 불교 성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남한의 반구대 암각화와 북한의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7월 13일 발표한 환영 논평에서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남북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반구천의 암각화와 금강산이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민족이 담지하는 여러 전통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의 문화유산이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금강산 세존봉 전경. 금강산은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사진 출처=위키백과

진우 스님은 금강산이 "민족의 영산(靈山)이자 한국불교의 성지(聖地)"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금강산 곳곳에 남아있는 여러 사찰에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중요 불교문화유산들이 여법하게 남아 있다. 이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인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한국 전쟁으로 소실된 신계사를 2007년 조계종과 북한불교계가 복원했음을 상기하며 "세계 정세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남북 간의 교류는 안타깝게도 잠시 멈춰있다. 금강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다시금 남북한 스님들이 신계사에서 함께 모여 부처님께 기도 올릴 날을 기다리겠다"고 서원했다.

반구대 암각화도 불교와 인연이 깊다. 이를 발견한 사람이 불교미술 석학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여서다. 한반도 선사인들의 창의성을 느낄 수 있는 '반구천 암각화'는 불교미술사학자 문명대 명예교수가 원효 스님이 주석하며 〈초장관문(初章觀文)〉,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 등을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반고사(磻高寺)를 찾고자 조사하던 중 1970, 1971년 잇달아 발견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와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차기 개최국으로 대한민국이 최종 선정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15일 오후(현지 시간) 차기 위원회의 대한민국 개최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제48차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내 선정절차를 거쳐 개최도시로 확정된 부산에서 개최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1998년에 일본, 2004년과 2021년에 중국 등 아시아에서 열린 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중일 기자

마곡사 주지후보에 원경 스님

7월 17일 산중총회서 4연임
"지역 포교 · 승려복지에 최선을"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후보에 원경 스님이 선출됐다.

마곡사는 7월 17일 오후 경내에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산중총회법 제5조 제4항에 의거해 구성원 167명(비구 124명, 비구니 43명) 중 본말사 스님 156명이 참석했다.

투표 결과 기호 1번 원경 스님이 87표를 얻어 주지후보로 당선됐다. 이로써 원경 스님은 4연임 주지 소임을 맡게 됐다.

기호 2번 제민 스님은 65표, 기호 4번 혜룡 스님이 2표를 얻었다. 무효는 2표로 집계됐다.


원경 스님(가운데)이 7월 17일 마곡사 주지 후보 당선증을 받고 있다.

원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역 포교와 승려복지를 강조하며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고 대중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원경 스님은 종립학교관리위원, 성불사 주지, 제13·14·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지냈다. 2013년부터 마곡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업무협약식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

“역사왜곡 바로잡은 주어사지, 종교 공존의 장”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7월 11일 안내판 재설치 기념식

광용·진경 스님 등 70여 명 동참
15년만에 변화…축하 연등 설치도
“공공성지 보존 방안 고민” 당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7월 11일 여주 주어사지에서 ‘종합안내판 수정 재설치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식 이후 단체사진 촬영 모습.

주어사지에 불교와 천주교의 역사가 함께 담긴 종합안내판이 세워지면서 종교 간 역사가 공존하는 ‘공공성지’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안내판 설치를 기념해 현장을 찾은 불자들은 천주학을 공부하던 이들을 보호하다 폐사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주어사 스님들의 용기와 자비를 기리며 “불교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를 계기로 종교 화합과 평화의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7월 11일 여주 주어사지에서 ‘종합안내판 수정 재설치 기념식’을 개최했다. 주어사는 가톨릭에서 ‘천주교 강학이 처음 시작된 성지’이지만, 불교에겐 ‘이웃 종교인을 보호하다 스님들이 처형되고 절이 폐사된’ 뼈아픈 기억이 서린 곳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는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진경 스님, 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승가연구소장 심원 스님, 부회장 혜욱 스님 등 비구니회 소임자 스님들, 아리담문화원장 송탁 스님,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과 여주시청 박내태 문화유산팀장과 최지환 문화예술과 주무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 행사는 주어사지 경내에 연등을 다는 것으로 시작해 안내판 설치까지의 경과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종합안내판은 단순히 글씨 몇 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종교 간 화합을 이루려는 노력의 결실”이라며 “오늘 이 순간부터 주어사지는 종교화합과 상생의 장으로 다시금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은 종합안내판 재설치가 “공공성지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종교와 역사가 함께 숨 쉬는 이 공간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주어사지 역사 연구와 현장 대응에 진력해온 송탁 스님도 “왜곡된 역사를 방관하지 않았기에 드디어 올바른 불교 역사를 되찾게 됐다”고 기쁜 마음을 드러내며 “역사는 유구히 이어지지만, 하루이틀의 관심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역사 지킴이’로서의 서원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종합안내판 재설치를 축하하는 축사도 이어졌다.

사회부장 진경 스님은 “이번 안내판 설치는 여주시를 설득해 이뤄낸 실질적 성과로, 비구니스님들의 끈기와 인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오늘 행사가 우리 모두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불교 역사를 수호하며 한국불교를 중흥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내태 문화유산팀장도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기까지 역사 공부를 많이 했다. 오늘을 계기로 주어사지가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명상, 서울국제명상엑스포서 만난다

동국대, 제6회 국제명상엑스포
6~11월 전국서 프로그램 진행
9월 25~26일 ‘명상 콘퍼런스’

K-명상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11월까지 진행된다.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9월 메인행사를 비롯해 11월까지 전국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친다”고 7월 15일 밝혔다.

제6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학술·문화·체험·교육 등 4개 영역에서 120여 개의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동국대 본관 남산홀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열리는 명상 콘퍼런스에서는 명상과 정신건강, 명상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논의하며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 가능성과 현대사회 속에서 명상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한다. 9월 20·21·27·28일에 진행되는 ‘선지식·지성인과의 만남’ 프로그램에서는 선명상의 본질과 현대인의 일상 실천법에 대해 가르침을 전한다.

9월 25일 개막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치사 및 기조연설과 함께 선명상의 의미를 담은 공연이 펼쳐진다. 26일에는 국악·클래식·시낭송·합창이 어우러지는 ‘선명상 콘서트’ 무대를 통해 선명상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축제 분위기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올해 개최되는 명상 체험 프로그램은 11월 22일~23일 SETEC 전시장에서 총 40여 개의 체험 부스와 함께 한다. 올해는 국내 명상 전문 지도자들이 맡는 체험 부스와 함께 인도·티베트·일본·영국 등 다양한 전통 명상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외 명상 부스가 마련된다.

또한 동국대 도서관 선(명상)홀에서 진행될 ‘도서관 선명상 체험’은 독서와 사유, 명상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치유 공간을 제공하며, 특히 젊은 층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8월과 9월에는 군위 제2석굴암에서 진행되는 무문관 집중수행 및 동국대 좌선실에서 좌선실 명상체험이 각각 진행된다. 10월과 11월에는 경남 양산 통도사 순례길과 서울 남산 둘레길에서 걷기순례명상을 만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과 정서 조절력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K-청소년 명상은 상시 운영이 가능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전국 학교와 위(Wee)센터 등에 배포되고 있다. 또한 ‘행복배달명상’을 통해 학교, 직장, 복지관 등 현장에 맞는 맞춤형 명상을 각각 제공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참가 신청은 서울국제명상엑스포 홈페이지(mind.dongguk.edu)에서 가능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신중일 기자

“복날엔 채식을! 지구 살리고 복도 쌓자”

불교환경연대, ‘복날 채식 캠페인’
레시피 공유 등 일상 속 채식 독려


불교환경연대가 7월 14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복날 채식 캠페인’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불교 핵심 가르침인 불살생(不殺生)과 생명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복날 기간 동안 육류 소비를 줄이고 채식 문화를 확산하는 캠페인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7월 20일을 시작으로 7월 30일 중복, 8월 9일 말복까지 3주간 ‘복날 채식 캠페인’을 진행한다. ‘복날에 고기 대신 채식으로 지구도 살리고 복도 쌓아요’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복날에 집중되는 육류 소비 문화의 전환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 축산업은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공장식 축산이 야기하는 탄소배출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불교환경연대는 ‘복날 채식 캠페인’을 일상 속 실천 중심으로 구성했다.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복날 채식 수요밥상 △채식 레시피 공유 △복날 채식 퀴즈 △채식 인증샷 및 경험 나누기 등이 마련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채식을 실천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채식 수요밥상은 불교환경연대와 신대승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불교진흥원이 후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요리와 식사를 함께 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8월 6일 진행되며 불교단체 활동가들이 직접 기른 제철 채소와 나물을 사용해 현장에서 조리하고 함께 식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에는 상불사 주지 동효 스님이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번 복날 채식 캠페인을 통해 육식 위주의 복날 문화를 생명존중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채식 중심의 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가능한 온라인 채팅방도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활동가들이 정성껏 기른 농산물 기념품이 제공된다. 010-9656-1654

임은호 기자

“템플스테이·사찰음식 알릴 논문 찾습니다”

문화사업단·한국관광학회 공모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이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와 함께 ‘2025년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의 학술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학술 활동을 활성화해 관련 연구 환경을 창출·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정신·관광자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 탐색’이다.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이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접수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수상자는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1차 결과 발표는 11월 9일, 본선 발표 및 시상식은 11월 21일로 예정됐다. 시상은 주제 부문별(템플스테이 부문, 사찰음식 부문)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씩 총 10팀에게 138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접수 방법 및 논문 양식은 7월 21일부터 한국불교문화사업단(www.kbuddhism.com) 홈페이지 또는 한국관광학회 홈페이지(www.tosok.org/index.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내영 기자

대원아카데미 2025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

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출석 교육)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에 필요한 학점 취득 가능
학습과목
정신건강과참선명상(교양/3학점/목요일)
불교심리학(불교학 전공/3학점/금요일)
주 1일(목 · 금) 14:00~18:00, 15주
신청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수강료: 100,000원(과목당)

학점은행제 과목과 평생교육과정 동시 수강 가능
○정신건강과참선명상(학점)+명상지도사(평생교육과정) 수강료: 30만원
○불교심리학(학점)+심리상담사(평생교육과정) 수강료: 30만원

◎ 평생교육과정

모집과정
대학원 과정 00명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출석 수업
(화 · 수) 13:00~17:00
(목 · 금) 13:00~18:00
수강료: 300,000원(학기당)

디지털대원아카데미(온라인 교육)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

모집과정
대학원 과정 00명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온라인 수강
(화 · 수) 13:00 업로드
(목 · 금) 13:00 업로드
수강료: 200,000원(학기당)

○ **공통과목:** 초기불교(니까야), 명상심리학, 불교란 무엇인가, 진화인간학, 뇌 과학과 불교,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명상과 (생명)과학, 서양에서 보는 불교 등

○ **전공과목:** MBSR과 MBCT 실습 Ⅱ, 불교 철학 세미나, 마음챙김의 이론과 실습, 정신건강과참선명상, 불교상담의 이론과 실습, 불교심리학, 유식학, 명상 세미나와 실습 Ⅰ, 인지심리학, 정신분석학, 자아초월과 불교심리치료, 불교명상학, 위빠사나 이론과 실습, 상담심리학, 사마타 이론과 실제 등

○ **교수진**
김정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문학 박사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동서양심리학 박사
박성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심리학 박사
양희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심신통합치유학 박사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불교학 박사
이한구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철학 박사
일중 스님 동국대학교 선학과 초빙교수, 철학 박사
최경아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강사, 철학 박사

○ **특전 및 혜택**
성적 최우수 장학금: 수강료 100% 지급
성적 우수 장학금: 수강료 50% 지급
스님 등록 시, 수강료 50% 할인
가족동반 등록 시, 1인 수강료 50% 할인
수료자 재등록 시, 수강료 50% 할인
2개 과정 동시등록 시, 1개 과정 50% 할인
민간자격(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취득자격 부여

○ **접수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대원아카데미: www.daewonacademy.org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digitaldaewon.org
접수 기간
평생교육과정: 2025년 9월 2일(화)까지
학점은행제: 2025년 9월 4일(목)까지
디지털대원아카데미: 2025년 9월 9일(화)까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0 다보빌딩(BBS불교방송) 3층(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도보 50m)
문의: (02) 707-107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kbpf.org

빛나는 청춘들, 무명초 자르고 불문에 들다

동국대 산하 고교 학생 4명
정각원서 출가 삭발식 봉행
문화포교, 군승 등 포부 다양
친구들 현수막 들고 축하
'선연' 소년출가 진흥 효과 UP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삭발식 직후 은사스님과 행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준한 스님과 박성원 행자, 제정 스님, 돈관 스님과 박호철 행자, 정경 스님과 채민우 행자, 정관 스님과 최가현 행자.



박성원 행자와 친구들이 삭발식 직후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배궁전에 주인공이 꿈만 꾸더니 무명초 몇 해나 무성했던가. 금강보검 번쩍 깎아버리니 무한광명이 대천세계 비추네."

동국대 정각원에 행자복을 입고 장궤합장을 한 홍안의 학생들이 '삭발게'를 합송했다. 이내 은사스님들이 청수 몇 방울을 머리에 뿌리고 난 뒤 무성한 무명초를 망설임 없이 베어버렸다. 무명초를 잘라낸 행자들은 그렇게 참된 수행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돈관 스님)는 7월 11일 서울캠퍼스 법당 정각원에서 '동국대 산하 고등학교 출가자 삭발식'을 봉행했다.

이날 출가를 발심해 삭발식에 나선 학생들은 동대부고 박성원 행자, 동국대부속 영석고 박호철·채민우 행자, 동국대 가람고 최가현 행자로 모두 산하 고교 3학년 학생들이다. 동국대 정각원에서 산하 학교 학생들의 삭발식이 봉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가 삭발식에는 학생들의 은사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간월암 주지 정경 스님,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소림사 주지 정관 스님을 비롯해 출가 학생 부모님들이 참석했다. 동국대 정각원장 제정 스님과 출가자 소속 학교 교장, 교법사, 학교 친구들도 함께했다.

돈관 스님은 출가자로 첫발을 내딛는 행자들에게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움(人身難得 佛法難逢)을 강조하며 "은사스님과 좋은 인연으로 출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사스님들은 앞으로 출가 행자들이 살아가는데 나침판이자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큰 길잡이가 되어 줄 스승을 만남에 감사드리고, 참된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배우라"고 당부했다.

행자들은 부처님과 은사스님께 삼배와 꽃 공양을 올렸으며, 삭발의식 이후에는 부모님께 보은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했다. 18년을 품었던 자식을 부처님께 보내는 어머니는 이내 눈물을 훔치면서도 행자의 등을 토닥였다.

삭발식이 엄숙하고 무겁지만은 않았다. 삭발식을 마치자 박성원 행자의 학교 친구들은 준비해 둔 현수막을 펼쳐 기념촬영을 하며 출가자로 나아가는 친구의 첫걸음을 축하해줬다. 준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는 박 행자는 "학교에서 신행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출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은사 준한 스님은 종립학교 불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선연'에서 인연이 됐다.

박 행자는 "홍대선원을 찾아가 뵙는데 일체 걸림없는 은사스님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왔다. 그때 출가자의 삶을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가현 행자를 제자로 받은 정관 스님은 행자의 아버지 최종호 씨에게 감사함과 미안함을 담아 "부처님 자녀가 된 따님을 훌륭한 수행자로 키우겠다"고 인사를 전하며 "젊은 세대에 맞는 교육으로 '스님 되길 잘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가르치려 한다"고 밝혔다.

최 행자는 "비구니 군승이 돼 청년들에게 불교가 정말 재미있고 꼭 배워야 할 종교임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삭발식을 통해 2년 전부터 시작된 종립학교 불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선연'의 소년출가 진흥 효과가 확인됐다.

권진영 동대부속 영석고 교법사는 "'선연을 찾아서' 템플스테이는 단순히 대자연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 방향을 스님과 이야기하며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며 "앞으로도 소년출가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북·전북 사찰, 지역 불자인재 양성 나섰다

동국대 '지미불' 동참 잇달아
법주사 등 4000만원 쾌척해
백양사, 장학금 1100만원 기부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와 소속 말사가 동국대에 장학금 4000만원을 쾌척했다. 사진은 장학증서 수여식 후 기념촬영(사진 왼쪽), 제18교구본사 백양사는 동국대에 장학금 11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은 수여식 후 기념촬영(사진 오른쪽).

충북 지역 본말사와 전북 지역 본사가 지역 미래 불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잇달아 쾌척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와 소속 말사는 7월 15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열린 '제112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동국대에 장학금 4000만원을 쾌척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를 비롯해 소속 말사인 용화사(주지 각연 스님), 안심사(주지 무경 스님), 미륵세계사(주지 법초 스님)가 동참해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충북 지역 재학생 40명에게 수여됐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은 '법주사·용화사·안심사·미륵세계사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부 사찰을 대표해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충청 지역 재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7월 15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3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동국대에 1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장학금은 장성·담양·함평·나주·영광 지역 장학생 11명에게 전달됐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장학생 여러분들이 각자 감사 편지에 남긴 사연과 함께 백양사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무공 스님은 "백양사와 동국대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印, 불교사원 언급 13세기 비문 발견

타밀나두주서 최초 발견
인근서 안거 유적도 남아



크리슈나기리 지구에서 발견된 13세기의 불교비문. 사진출처=더힌두

남인도 타밀나두주에서 불교사원을 언급하는 최초의 석각비문이 발견돼 화제다. 지난 7월 3일 인도의 '더 힌두'는 새로운 비문의 발견으로 현지 불교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보도했다.

타밀나두주 크리슈나기리 지구의 자가다프 마을에 소재한 망고농장에서 발견된 이 석각 비문은 13세기에 새겨진 것으로 총 9줄로 새겨져 있다. 바위의 일부가 잘려나가면서 일부 글씨와 조각이 사라졌으나 지역 상인이 땅에서 얻은 수익을 불교사원에 보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문을 판독한 연구원 C. 고빈다라즈는 "비문에는 '거룩하신 부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으며, 비문의 시작 부분에는 법륜과 불탑을 상징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타밀나두주에선 힌두교, 자이나교 사원을 언급하는 비문은 많이 발견되었지만, 불교 사원을 언급하는 석문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비문에는 카다이쿠투르(Kadaikoottur) 라는 사원에 보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현지 전문가들은 발견지 근처에 위치한 카다가투르(Kadagathur)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빈다라즈 연구원은 "수년 전 카다가투르에서 초등학교 발굴 작업 중 입불과 좌불 두 개의 불상이 발견됐고 현지의 오래된 힌두교 사원에는 사원 부지가 원래 불교 사원이었음을 언급하는 비문도 남아 있다"며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불교 사원의 위치가 특정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비문이 발견된 유적지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서는 법륜과 불탑이 새겨진 또 다른 암각화가 발견됐고 30m 더 떨어진 곳에는 불교승단이 안거를 보내는 곳으로 추정되는 동굴 유적이 남아 있는 등 현지 불교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사찰자산관리 '불교은행' 설립 추진

하원 부의장이 직접 제안해

최근 태국 내 사찰들의 자산관리가 불투명하게 이뤄져 온 것에 대해 여러 스캔들이 일면서 정부차원에서의 자산관리 개혁을 제안하고 나섰다. 7월 12일 태국의 '파타야 메일'은 관련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지난 8일 방콕 정부청사에서 연설한 수차르트 탄차론 하원 부의장은 태국 내 불교사찰 재정 감독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불교은행'의 신설을 제안했다. 수차르트 부의장은 "사찰의 자산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다. 이러한 자산은 적절하게 문서화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라고 제안의의를 밝혔다.

불교은행의 신설 제안은 최근 태국불교계를 뒤흔든 일련의 금융 스캔들 속에서 나왔다. 특히 최근 한 대형사찰의 주지를 맡았던 스님이 갑자기 환계를 선언하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사찰의 계좌에서 2200만 바트(한화 약 9억 3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차르트 부의장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자산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들의 배후에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불교 신자인 나라에서 이러한 신앙의 위기는 매우 불안하며 지체없이 해결돼야 한다"며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키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11월02일 출발~11월07일 도착(6일 일정)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달라이라마 친견 및 남인도 아잔타석굴 순례 9일
10월31일 출발~11월08일 도착(9일 일정)
남인도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산치대탑등을 순례하고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일정입니다.
■ 일정: 인천-델리-아잔타석굴-엘로라석굴-산치대탑-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달라이라마 친견 및인도성지순례 12일
10월28일 출발~11월08일 도착(12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9월10일 출발~9월15일 도착
■ 일정: 인천-남경-지장보살 구화산-항주-관음보살 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 일정: 인천-북경-대동-운강석굴,화엄사-현공사-오대산 5대 순례-북경-인천
▶ 동참금 : 15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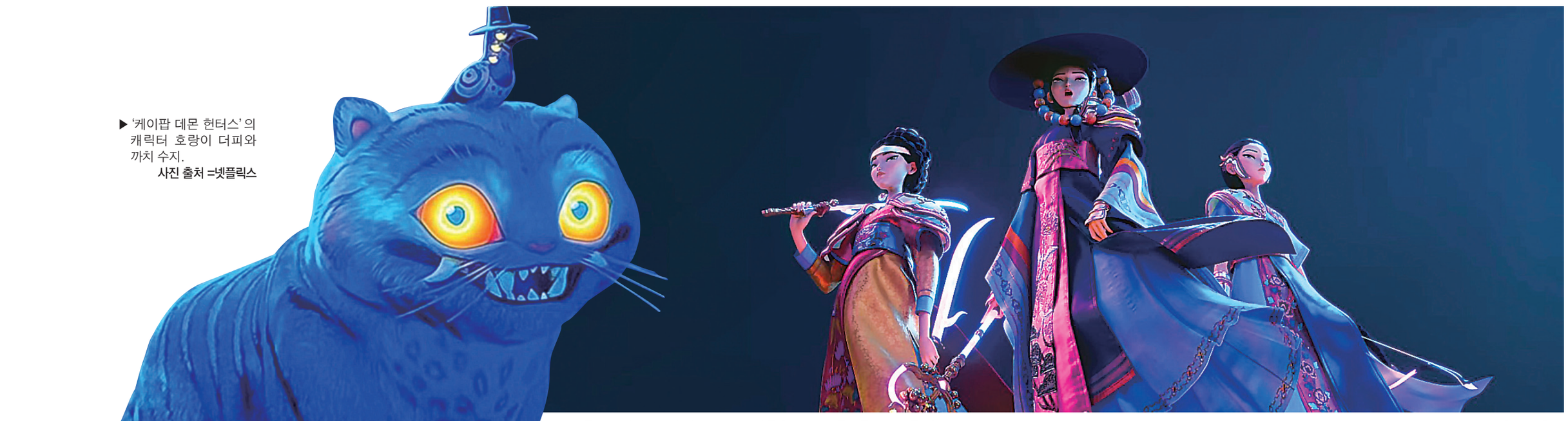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9월23일~30일(6박8일)
■ 일정: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429만원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7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월10일~10월16일
■ 일정: 인천-서안-법문사(부처님진신사리)-맥적산석굴-난주 병령사석굴-가욕관-돈황석굴-서안-인천
▶ 동참금 : 259만원

벽사·길상 의미 담긴 전통 동물 불교미술에도 영향



▶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캐릭터 호랑이 더피와 까치 수지.
사진 출처 =넷플릭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인 걸그룹 '헌트릭스'.
사진 출처=넷플릭스

불교로 읽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① 아이돌이 된 명부사자(冥府使者)

② 성보 속 더피(호랑이)와 수지(까치)



양산 통도사 명부전 호작도 벽화, 조선 후기.
사진 제공=필자



공주 대비암 산신도, 조선 후기.
사진 출처=국립중앙박물관

전통문화 속 벽사의 아이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는 수많은 요소가 등장한다. 그중 가장 큰 인기를 끈 캐릭터는 바로 '더피'와 '수지'다. 앞글에서 다룬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의 멤버 진우의 심부름꾼으로 등장하는 더피와 수지는 국내외 언론과 SNS 등에서 조명한 바와 같이 조선 후기 민화(民畵) '호작도(虎鵲圖)'를 모티프로 제작된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인공인 걸그룹 '헌트릭스'가 사용하는 무기다. 이 무기 역시 호랑이나 까치처럼 벽사(辟邪)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더피와 수지의 원류인 호작도와 헌트릭스가 사용한 무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호랑이와 까치 그린 민화 '호작도'

호작도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전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모델로도 알려져 있다. 육당 최남선은 조선을 호랑이 설화가 많은 나라라는 뜻의 '호담국(虎談國)'이라 했고, 이웃한 중국과 일본은 물론 저 멀리 유럽까지도 우리를 호랑이의 민족이라 표현했다. 이렇듯 호랑이는 명실상부한 민족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호작도는 그 원류가 중국이지만 조선 스타일로 재탄생했다. 액운을 물리치는 호랑이에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까치까지. 그야말로 '환상의 커플'로 이루어진 호작도는 조선 사회에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고, 정월 초하루 액운을 막기 위해 대문 앞에 붙이는 문배도(門排圖)로 사용됐다.



사인검과 별자리 문양, 조선 후기.
사진 출처=국립고궁박물관

호작도는 불교계에도 영향을 준다. 첫 번째는 사찰 벽화다. 조선 후기에 건립된 전각 곳곳에서 호작도 벽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양산 통도사, 강화 전등사처럼 대들보와 공포를 호랑이로 형상화한 사례도 확인된다. 이처럼 호작도가 사찰 벽화와 건축 장식에 사용된 예는 액운을 막는 기능, 즉 벽사의 관념이 불교에도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산신도(山神圖)의 호랑이다. 사찰의 산신각(山神閣) 혹은 산령각(山靈閣)이라 불리는 전각에는 산신도가 봉안되어 있는데, 대부분 산신령과 호랑이가 함께 표현된다. 호랑이가 산신령 옆에 찰싹 붙어 있거나, 산신령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모습도 있다. 이는 우리 국토에 수많은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던 점과 더불어 당시 호랑이를 '산군(山君)', 즉 산의 주인으로 여긴 관념을 보여준다. 이에 산신도에 표현된 호랑이는 산신령의 심부름꾼이자 '화신(化身)' 그 자체로 해석할 수 있다.

벽화·산신도 등에 친근하게 표현

그런데 사찰에 표현된 호랑이를 살펴보면 뻐드렁니와 사시(斜視) 등 영락없는 민화 스타일이다. 또 나한상 일부에는 호랑이를 반려묘처럼 꼭 끌어안은 모습도 확인된다. 무릇 불교미술이란 엄숙한 종교예술이라 여겨지는데, 사찰 속 호랑이는 이와 상반되게 익살스럽고 해학이 넘친다. 이는 백성들을 위한 배려다. 사찰을 편하게 여길 수 있도록 친근한 호랑이의 모습을 그려넣은 것이다. 이러한 자비심 덕분에 백성들은 사찰을 친근하게 여겼을 것이고, 이는 민화 바람이 분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시작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특이한 건 수지의 외모다. 위아래로 달린 세 개의 눈은 기존 호작도에서 볼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우리 문화 곳곳에는 특정 부위가 세 개로 이루어진 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세 발 까마귀 삼족오(三足烏)부터 세 개의 머리로 삼재(三災)를 쪼는 삼두응(三頭鷹), 세 개 눈이 달린 지옥견 삼목구(三目狗)까지 그 사례가 다양하다.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호랑이
통도사 · 전등사 벽화서도 확인
인검 · 석장 등 무기 든 주인공
악귀 쫓는 '오컬트 관점' 해석



진주 청곡사 나한상의 호랑이, 조선 후기.
사진 제공=필자

이는 세 개의 신체 부위로 액운을 막는 의미와 함께, 3이 완성과 균형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점을 알려준다. 대표적으로 〈사기(史記)〉의 "숫자의 시작은 1이고, 끝은 10이다. 이는 3에서 완성된다."라는 기록과 〈설문해자(說文解字)〉에 "3은 천지인(天地人)을 만든 법칙이다."라는 내용에서 확인된다. 이에 세 개의 신체 요소를 지닌 전통문화 속 동물은 벽사와 길상(吉祥)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수지가 지닌 세 개의 눈 역시 이와 같은 사례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벽사와 불법의 아이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귀를 퇴치하는 '오컬트' 장르의 애니메이션 영화다. 헌트릭스 멤버는 무복(巫服) 차림에 여러 무기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언월도(偃月刀)와 각궁(角弓), 신검(神劍)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두 무기에 주목해 보자.

첫 번째는 '인검(寅劍)'이다. '사인검(四寅劍)', '사인참사검(四寅斬蛇劍)'이라고도 불리는 인검은 앞서 살펴본 호랑이와 관련이 깊다. '인(寅)'은 십이지 중 세 번째인 호랑이를 뜻하는데 호랑이의 용맹함으로 액운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조선 왕실의 인검은 '인'자가 들어간 해, 월, 일, 시간에 제작되었으며 칼날 양면에는 별자리와 주술적 내용의 검결(劍訣)까지 새겼다. 명칭부터 제작, 구성에 이르기까지 인검은 벽사의 성격이 매우 짙다.

두 번째는 '석장(錫杖)'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칵카라(Khakkhara)'라고 불리는 석장은 스님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머리 부분에 고리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리가 흔들리며 내는 소리를 듣고 짐승과 벌레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살생을 막고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예로부터 석장은 스님의 상징물이었다. 대표적으로 석장을 공중에 날렸다는 고승 양지(良志) 이야기가 담긴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양지사석(良志使錫)' 기록이 있으며, 지장보살(地藏菩薩)의 지물(持物)로도 표현된다. 지장보살은 석장과 보주(寶珠)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지옥의 중생을 구원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비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석장은 일본 애니메이션 '이누야샤'와 '귀멸의 칼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경우 벌레와 짐승을 쫓아내는 석장의 성격을 악귀 무리를 쫓아낸다는 오컬트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문화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는 글로벌 플랫폼과 한류열풍 덕분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의 산물로 치부됐던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MZ세대들의 인식이 큰 역할을 한다. 최근 '힙(Hip) 불교'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MZ세대들에게 불교가 큰 인기다. 지난해와 올해 수많은 인파로 화제가 된 불교박람회의 참가자 중 20~3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편안하고 개방적인 불교에 MZ세대가 크게 호응한 것이다. 이들의 관심이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연이어 등장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불교와 전통문화 또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해석될 것이다.



석장 머리 부분, 고려 후기.
사진 출처=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지장보살도, 고려 후기.
사진 출처=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김용덕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강사, 한국민화센터 이사



부산 불자 1000여 명 수계…“청정한 삶 발심”

조계종부산연, 제8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불갑사 관정수로 초심 되새겨
군장병 90여 명 동참해 ‘눈길’
지현 스님 “계율, 고통 멈출 지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7월 15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8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소속 9개 사찰과 지역 신행단체, 불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불자로서의 삶을 서원했다.

수계법회는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이자 관음사 회주인 지현 대종사가 전계대화상을 맡았으며, 갈마아사리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교수아사리는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이 담당했다. 존증아사리는 목종·도일·하림·지일·정관·인호·지산 스님이 맡아 계단을 증명했다.

법회는 태공 스님의 인례 아래 대종오타, 삼보예경, 청사 및 개도, 참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관정의식에 사용된 관정수는 백제 불교 전래의 시원지인 영광 불갑사에서 직접 채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법석에는 대광명사, 홍법사, 혜원정사, 관음사, 미타선원, 해광사, 내원정사, 원오사, 불암사 등 연합회 소속 사찰을 비롯해 부산여성불자회,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BBS법소리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제53보병사단 장병 90여 명도 수계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수계법회는 8회를 맞아 참석자의 구성과 의미 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줬다. 특히 군장병의 참여는 수계 의식의 외연을 확장한 사례로, 청년 세대가 계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수행의 가치를 체득하는 발심의 자리로 기능했다. 이번 행사는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고 공동체적 수행 전통을 계승하는 발전적 모습으로 평가된다.

전계대화상 지현 스님은 설법을 통해 “계를 받는 순간 불가사의한 공덕이 시작되고, 그 공덕은 여러분의 불가사의한 신심과 원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칠불통계는 모든 고통을 멈추는 지혜이다. 악행을 멈추고 선을 실천하는 바로 그 길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듯, 청정한 계율을 실천하는 삶은 이 오탁악세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빛을 낼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부처님의 씨앗을 심었으니, 그 씨앗을 정성껏 키워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가 7월 15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8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군장병에게 관정의식을 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

갈마아사리 심산 스님은 “오늘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으신 모든 불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제53사단 장병들과 같은 청년 세대가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은 매우 뜻깊다. 불교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희망의 불씨를 밝히는 일”이라며 “수계를 통해 삶의 방향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교수아사리 원허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의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다짐이자 결단”이라며 “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일깨워주는 나침반이다.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 속에 계율이 스며들어야 하며, 작고 사소한 실천이 쌓일 때 진정한 불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장 목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무명에서 지혜로, 고통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수계는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선택이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언행과 마음을 돌아보고, 불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상을향기롭게, 미얀마 현장 답사·기부

양곤 · 바고 보육원 등 방문…3000달러 후원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이사장 정여 스님)가 7월 4~8일 미얀마 양곤과 바고 지역을 방문해 복지사업 준비를 위한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지역 복지시설에 총 3000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방문은 미얀마 지역 내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복지·교육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세상을향기롭게는 현지 기관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단은 양곤의 야쨔쪼 보육원, 양곤불교대학교, 바고의 사마네쪄 수도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며 연대와 나눔의 의미를 전했다.

정여 스님은 “이번 미얀마 방문은 단순한 시혜적 구호사업이 아니라 같은 불교국가로서의 유대와 공감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세상을 더욱 향기롭게 만드는 복지와 교육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 잇는 자비 실천, 함께해요”

생명나눔부산, 장기기증 인식 전환 강좌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가 7월 11일 부산 영광도서 8층 문화홀에서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 강좌’를 열고 장기기증의 필요성과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사진〉



1부 강의는 복춘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전 영남지부장이 맡아 ‘장기 및 조직기증, 뇌사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장기기증의 개념과 절차, 실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시민들의 인식을 넓혔다. 이어진 2부에서는 박동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이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심산 스님은 “오늘 이 자리가 시민 여러분에게 생명과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해난구조대 힐링 템플스테이 개최

7월 15일~16일, 20여 명 동참
심산 스님 “프로그램 전액 지원”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가 해군 장병들에게 정서적 회복과 쉼을 제공하기 위해 공익형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첫 템플스테이는 해군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구조작전대대 소속 심해잠수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다.

SSU는 해상 인명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투입돼 생존자 구조와 희생자 수습을 맡는 부대로, 극한 환경에서 고도의 집중력과 정신력을 요구받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이들에게 ‘쉼’과 ‘내면 회복’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홍법사 공익형 템플스테이에는 SSU 구조작전대대 소속 심해잠수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싱잉볼 이완 명상 △호흡 및 걷기 명상 △108배 수행 △사찰음식 만들기 △주지스님과의 차담 △소감문 나눔 등으로 구성됐다.

심산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사회를 지탱하는 이들을 위한 공익적 수행이어야 한다”며 “군인, 경찰, 교사, 공무원 등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전액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 장병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박영남 중령은 “극한의 임무에 투입되는 대원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처음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이진규 하사는 “잡념 없이 편히 쉬면서 그동안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SSU 템플스테이는 1차를 시작으로 총 5차례까지 계획됐다. 이어지는 회차에는 SSU 다른 중대와 진해 지역의 해군 부대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초에는 해군사관학교 생도 20여 명이 참가하는 별도 템플스테이도 예정돼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부산정각원, 어르신 초청 영양식 공양

7월 16일, 1000인분 마련…“정성으로 마련”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이사장 향공 스님)이 장마와 폭염으로 지친 지역 어르신들에게 영양식을 공양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부산정각원은 7월 16일 부산 사상구 모라동 고동바위공원에서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식 만발공양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공양은 견강암 신도들과 부산정각원 회원들이 며칠 전부터 직접 재료 손질과 조리에 동참해 마련했다. 우정축산이 재료를 보시하고 ‘행복소리’가 음향 장비를 지원해 정성을 더했다.

향공 스님은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그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경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 총동문회

4대 회장 도심 스님 취임

축



상임수석부회장 최병환 등
‘4대 집행부’ 위촉식 성료

취임 및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 총동문회 -

만암 스님 원력 계승 동종·탱화 불사 회향

백양사, 7월 12일 회향법회
6900여명 동참 동종불사 완료
신중탱화 보존 마치고 점안해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대웅전에서 열린 동종불사 회향법회에서 조성한 동종을 울리는 무공 스님.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7월 12일 대웅전에서 '동종불사 회향 및 신중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근현대 백양사 중창조인 만암 대종사의 원력을 계승한 두 불사를 장엄하게 회향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 조계종 원로의원인 암도 스님, 현 원로의원 성오 스님,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해 문도 스님 100여 명과 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도량을 가득 메웠다.

법회는 백양사 대웅전에 새롭게 조성된 범종을 봉안하고, 100년 전 조성된 신중탱화를 보존 처리한 뒤 원자리로 환수해 점안하는 뜻깊은 의식으로 진행됐다.

백양사 대웅전에 모셔졌던 기존 동종은 본래 불갑사에서 사용되던 것으로, 일제강점기 금속 공출 위기에 처했던 것을 만암 대종사가 목포항에서 회수해 백양사로 이운한 소중한 종이다. 오랜 세월 사용되며 종에 실금이 생기고 소리가 탁해지자, 2020년부터 종불사 추진이 시작됐고, 종무회의를 통해 신종 제작이 의결됐다. 이후 6980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모연을 바탕으로 '고불총림 백양사' 이름을 새긴 새 종이 완성돼 이날 대웅전에 봉안됐다.

신중탱화는 1922년 만암당 종헌 대종사가 백양사 대웅전을 중창하면서 조성해 봉안했던 불화로, 100년의 세월 속에 훼손이 심해졌다. 이에 주지 무공 스님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맺고 약 10개월에 걸친 보존 처리를 진행해 이번 법회를 통해 본래의 자리로 복원하게 됐다.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불사와 신중탱화 점안을 통해 이 도량에 부처님의 자비와 신중님의 위신력이 가득 깃들게 되었다"며 "범종소리에 담긴 모든 불자들의 이름과 원력이 법계에 퍼져 복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백양사가 선맥을 잇는 청정도량으로서 수행과 나눔이 함께하는 사찰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이날 새롭게 조성한 동종에 대해 "백양사만의 의미를 담고자 한쪽 면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명호를 새겼고, 반대쪽에는 백양사의 흰 양 전설의 의미를 담아 '양머리를 한 비천상'을 새겼다. 그리고 종의 하단에는 팔정도 사리탑의 의미를 넣어 당좌 8곳을 아래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법문에 나선 성오 스님은 "백양사의 종소리는 지옥 중생을 위로하고, 깨달음의 계기를 주는 불음(佛音)"이라며 "종소리의 여운처럼 시주자의 공덕도 법계에 퍼진다"고 설했다. 이어 "신중탱화는 불법을 지키는 신중님을 다시 모시는 의미 있는 불사로, 이 인연에 동참한 불자들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큰 복을 지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무공 스님은 동종불사에 큰 공헌을 한 덕운향 보살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국대-인제군, '님의 침묵' 기념사업 추진

7월 11일 공동 합의문 서명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동국대와 인제군이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동국대(총장 윤재웅)와 강원도 인제군(군수 최상기)는 7월 11일 인제군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

서명식에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과 최상기 인제군수가 참석했으며, 전한성 동국대 만해연구소장, 김윤길 기념사업위원회 운영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배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님의 침묵〉 100주년 기념행사를 민족·진영·지역·종교 등을 아우르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만해 선사의 위대한 정신이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한성 만해연구소장은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현재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더욱 성공적인 기념행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7월 12일에는 윤재웅 총장과 만해연구소 관계자들이 설악산 오세암을 직접 방문해 기념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계자는 "이번 인제군과 동국대학교의 공동 협력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숭고한 정신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님의 침묵〉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도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도심 스님, 생활풍수 CEO 총동문회장 연임

7월 13일 4대 집행부 출범
"생활풍수 대중화 이끌 것"



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 이사장 도심 스님이 7월 13일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 CEO과정 총동문회 4대 회장에 연임, 집행부 위촉식을 열었다.

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 이사장 도심 스님(안성 연등사 주지)이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 CEO 총동문회 제4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동국대 생활풍수 CEO 총동문회(총동문회장 도심 스님, 이하 동풍동문회)는 7월 13일 안성시 일죽면에 위치한 연등사에서 제4대 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도심 스님의 회장 연임과 함께 33명의 신임 임원으로 구성된 4대 집행부 출범을 알렸다.

도심 스님은 2019년 동풍동문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생활풍수 CEO 과정을 수료한 동문들과 함께 학문적 연대와 사회 환원을 실천해왔다. 특히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4천만 원 기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후학 양성 기금 1천만 원 기탁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교육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도모해왔다.

도심 스님을 중심으로 동풍동문회는 풍수지리의 가치를 사회에 확산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동풍동문회는 화장문화 보급 속에 묘자리를 보는 음택에서 생활에 밀접한 양택으로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심 스님은 "생활풍수는 우리 삶을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삶의 철학"이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실천의 자세로 생활풍수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연임과 신임 임원진 출범은 동문회를 넘어 생활풍수 분야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스님은 올해 2월 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을 발족하고 이사장으로서 장애인 청소년과 가정을 돕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심 스님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베푸는 것은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나눔의 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풍수지리는 단순한 학문을 넘어 인간과 자연, 사회를 조화롭게 이어주는 삶의 지혜이기에, 앞으로도 후학 양성과 사회 환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화엄사서 만나는 뮤지컬 갈라콘서트

8월 2일 '모기장 음악회'


지난해 열린 화엄사 모기장음악회.
사진제공=화엄사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가 오는 8월 2일 오후 7시 30분, 경내 화엄원 특설무대에서 제5회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공연은 '화엄! 빛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주제로, 뮤지컬계 대표 배우 이건명 씨가 사회자와 출연자로 함께 무대에 선다. 더불어 뮤지컬 배우 리사, 팝페라 가수 아리현, 장소연 등이 참여해 '노트르담 드 파리' '위대한 쇼맨' 등 갈라 콘서트를 100분간 선보일 예정이다.

주지 우석 스님은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는 화엄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윤명 대선사 42주기 추모다례재

7월 12일 생전예수재 초재도


조계종 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7월 12일 선운사 초대 주지로 사격을 일신한 남곡당 윤명 대선사 42주기 추모다례재와 생전예수재 초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추모재는 남곡 스님의 문손 재곤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원로 대우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참당선원장 법만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우리절 주지 법경 스님, 종회의원 태효 스님 등 선운사 사부대중 60여명이 참석해 생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추모재 후에는 생전예수재 초재가 봉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곡사, 일현 스님 34주기 추모다례재

7월 10일 경내 관음전서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7월 10일 관음전에서 근대 한국불교 의례 정립과 교육에 헌신한 취담당 일현 대종사의 34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직무대행 혜경 스님은 봉행사에서 "일현 대종사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익산에서 출가하신 뒤, 평생 염불과 참선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신 종문의 큰 스승"이라고 회고하며 "스님의 뜻을 이어 문도 대중이 마음을 모아 수행환경을 개선하고 신명으로 함께하는 불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일현 대종사의 교육 정신을 계승하고자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장학금은 동국대에 재학 중인 승현 스님, 지견 스님, 원민 스님을 비롯해 동학사 승가대학의 법우 스님과 법륜 스님 등에게 각각 전달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고성 서방사, 관정 대사 18주기 다례재

7월 13일 극락전서 봉행



대한불교정토선종 총본산 서방사(주지 등정 스님)는 7월 13일 경내 극락전에서 관정 대사 열반 18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석에는 총무원장 등정 스님과 지장암 일각 스님, 성덕사 도안 스님, 금선암 혜정 스님, 구암사 혜수 스님, 광명사 법안 스님, 최종환 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등정 스님은 법어에서 관정 대사의 원력과 가르침을 기리며 "대사께서 전해주신 정토선 수행법은 말법시대 중생들이 쉽고 빠르게 성불할 수 있는 길"이라며 "수행이란 굳건히 길을 내는 일이며, 자비는 단순히 물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헤아려 베푸는 것"이라고 실천을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주 신일중, 태고종 보문사 문화탐방

7월 10일 불교문화 체험



전주 신일중학교 학생들이 태고종 전북종무원 보문사를 찾아 불교문화와 지역의 역사를 배웠다.

7월 10일, '우리 지역을 알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탐방에는 전주신일중학교 3학년 학생 15명이 참여해 보문사의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사진〉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회주)은 "누구나 종교를 가질 수 있지만, 종교에 속박되는 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문사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종이를 모아 만든 '종이 부처님(紙佛)'이 있는 역사 깊은 사찰"이라고 소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명사, 불사 원만 회향 기념 산신기도

7월 12일 일주문 기와 불사 등



천안 성거산 보명사(주지 활암 스님)가 7월 12일 일주문 기와불사 등 주요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념하는 '21일 특별 산신기도'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그간 진행해 온 일주문 기와 및 단청 불사, 해태 석물 조성, 박공 불사 등 경내 주요 불사를 원만히 회향한 것을 기념하고, 도량 전체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지 활암 스님은 "우리가 짓는 불사는 사찰의 외형을 만드는 것을 넘어 부처님 법을 믿는 신심 위에 발원과 정성을 더하는 수행의 길"이라며 "기도와 불사는 본디 하나이기에 작은 정성도 회향의 공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여수 보문복지회, 삼계탕 나눔

7월 11일 성산공원서



여수 향일암과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이사장 연규 스님, 향일암 주지)는 7월 11일 여수 성산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사진〉

행사에는 보문복지회 이사장 연규 스님을 비롯해 주철현 국회의원, 문갑태 여수시부의장, 보문복지회 산하 직원과 지역 어르신 등 600여 명이 동참했다.

연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삼계탕은 보문복지회 모든 가족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보약 같은 음식"이라며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6~7/22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안스님의 승만경 강의(왕비의 발원)	지안	운주사
2	비구 법정(평전)	여태동	중앙출판사
3	생전예수재(개정판)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출판사
4	참사람의 심령	암도	맑은소리맑은나라
5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 필사 명상	법상	조계종출판사
6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	하련거	비움과소통
7	인과경	지묵	우리출판사
8	예수재의범	해사	운주사
9	날마다 부처님(불교 컬러링 북)	무여	그봄
10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스님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붓다의 호흡명상 : 빠띠삼비다막가호흡관	김근중 엮음	운주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화 : 마음의불꽃을식히는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4	정통선의 향훈(청화선사법어집1)	청화스님/벽산문도회	광륜출판사
5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마쓰나미 고도	바다출판사
6	염불 모든것을 이루는 힘(권수염불법문)	원영굉오/정원규	불광출판사
7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8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1)	비구 범일	여시아독
9	통찰의 체험:간단하고직 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조셉 골드스타인	운주사
10	365일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한마디(스프링)	법상/용정운 그림	조계종출판사

예수재 전통 의문 망라

〈儀文〉



생전예수생칠지재의

경제어산보존회 편찬

정우북스 / 2만5000원

경제어산보존회, 10년 연구 성과

목판본 · 필사본 비교해 의문 정리

"예수재 보존 · 전승에 도움 되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을사년 윤달(7월 25일~8월 22일)을 앞두고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를 봉행한다. 생전예수재는 생전(生前)에 미리[豫] 수행과 공덕을 닦는[修] 법회[齋]를 일컫는다.

예수재는 전통 의식을 모두 봉행하는데 최소 15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사찰마다 지역적 특성이나 설행되는 상황에 따라 의식을 줄이거나 생략하기도 한다. 경제어산보존회 산하 경제어산연구소(소장 정오 스님)는 그간 사찰마다 제각각이던 예수재 의례의 의문(儀文)을 망라해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동주 스님(조계종 초대 어산어장, 서울시 무형유산 경제어산 보유자)과 정오 스님(조계종 어산종장, 경제어산 이수자)은 7월 15일 출판간담회를 열고 〈생전예수생칠지재의〉 출간 의미를 밝혔다.

정오 스님은 "이번 책에서는 여러 목판본과 필사본을 비교해 의례의 원형을 밝히고 오류를 바로잡고자 했다"며 "이 책을 바탕으로 집전자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2015년부터 영산재, 수륙재 등 사찰에서 행해지는 5종의 전통 의례에 대한 흩어진 자료를 모으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책에서는 '운수상단'이라 불리던 의식을 '도량건립'이라고 하고, 재회를 마친 다음의 배송을 도배송과 상하배송 형식으로 동시에 편재했다. 또 수륙재나 예수재의 시작을 알리는 사자단의 말은 신마(信馬), 고사단의 말은 전마(錢馬)로 구별해 각각 사자단과 고사단 뒤에 봉행하도록 했다.



경제어산보존회를 이끌고 있는 동주 스님(왼쪽, 조계종 초대 어산어장)과 정오 스님(조계종 어산종장)이 7월 15일 출판간담회를 열고 〈생전예수생칠지재의〉 출간을 알렸다.

이와 함께 예수재에서 편지를 전하는 사자가 가지고 떠나는 청장(請狀)은 산 자를 위하고, 물장(物狀)은 죽은 자를 위하는 편지라는 형식으로 구분해 행해지고 있지만 〈석문의범〉에 따라 둘 다 산 자를 위해 보내는 편지로 정리했다. 의례 집전 시 소리를 내는 방식 고·하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행간을 넓게 편집한 것도 특징이다.

정오 스님은 "시대에 따라 의례가 변화하는 현실에서 전통 의례의 의문을 오롯이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출간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 책으로 생전예수재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문을 집대성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범패의 중흥조인 송암 스님에게 불교 전통 의례를 배운 동주 스님은 "1000년을 이어온 전통적인 불교 의례 의식이 오늘날 점점 더 간소화되고 있다"며 "예수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는 교본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불교 의례가 올곧게 전승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불교서 비롯된 '하타 요가' 안내서



그림으로 읽는 요가의 세계

이토 다케시 지음

김재민 · 김현덕 · 양경인 옮김

김영사 / 6만원

日 연구자의 50년 수행 집약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일본의 재야 인도문화연구가이자 요가 수행자인 이토 다케시가 50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약한 종합 요가 안내서가 번역 출간됐다.

〈그림으로 읽는 요가의 세계〉는 저자가 20대 초반인 1979년부터 인도, 네팔, 태국 등에서 진행한 현장 조사와 문헌 연구 결과물을 집대성한 책이다. 요가와 관련된 신화, 철학, 상징, 역사, 생리학, 의례 등 이론과 실천 체계를 108개의 핵심 키워드로 망라했다. 또 저자가 직접 그린 200여 점의 그림과 표를 통해 요가의 사상체계와 용어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자는 하타 요가에 주목한다. 그는 하타 요가는 신체적인 것, 라자 요가는 정신적 또는 영적인 것이라는 일반적인 분류에 의문을 품고 인도 현지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저자는 "하타 요가는 자신의 몸을 대우주의 축소판인 소우주라고 보는 탄트라의 요가"라며 "하타 요가는 불교 탄트라, 이른바 후기 불교에서 자라난 요가"라고 정의한다.

이 책에서도 하타 요가의 탄트라적 측면을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 1부 '지식편'에서는 요가에 대한 기초 지식·사상·우주관·신체관·생리학을, 2부 '실천편'에서는 의학·호흡·아사나·밀교 의례로 나눠 설명한다. 2장 '요가의 사상'에서 〈요가수트라〉와 〈반야심경〉을 비교해 요가 사상을 재검토하는 부분도 인상적이다.

2010년 일본에서 처음 출간된 이 책은 김재민(동국대 불교대학원 융합요가학과 책임교수), 김현덕(경북대 인문학술원 연구원), 양경인(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 박사 수료) 씨가 7년에 걸친 작업 끝에 번역을 완료했다.

역자들은 "요가 전통 중에서도 탄트라적인 요가 유파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책이 그러한 갈증을 일정 정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인도의 전반적인 수행 전통과 철학,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과 하타 요가와 탄트라 요가의 이론과 실천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이웃 종교 책 읽기

MZ세대 떠난 종교, 해법은?



5無 교회가 온다

황인권 지음

ilp / 1만9800원

십자가·장로·새벽예배 없는 교회

"종교도 시대 맞게 리브랜딩 필요"

"MZ세대들은 왜 교회에 오지 않을까?"

〈5無 교회가 온다〉는 이 물음에서 출발한다. 담임목사의 자녀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현실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저자는 "이미 '5無 교회'가 우리 곁에 와 있다"고 말한다.

'5無'는 십자가, 구역, 성경 공부, 새벽 예배, 장로다. '교회'라고 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당연히 있어야 할 요소들이지만 오늘날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다. 저자는 이를 교회의 '몰락'이 아니라 '전환'의 징후로 읽는다.

책에서는 이러한 전환을 일으킨 'MZ세대'는 누구인지를 살핀다. 그들의 특성을 알아야 교회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꾼 '모바일 혁명',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미 제너레이션(Me Generation)'을 변화의 배경으로 짚고, MZ세대의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살핀다. 특히 "MZ세대가 종교에는 관심이 없지만 영적인 것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최근 '힙(Hip)'한 종교로 떠오른 불교에 주목한다.

저자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등 2030세대가 불교에 열광하는 현상에 대해 "불교가 MZ세대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자기돌봄, 마음챙김 등의 라이프스타일에 결합해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적용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지나치게 전통적인 형식과 접근법만을 고집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독교도 더욱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의 영적인 필요와 갈망을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채워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과 불교계의 발 빠른 움직임도 소개한다. 저자는 최근 여러 사찰에서 열린 '반려견 동반 템플스테이'에 대해 "반려동물과 관련해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하는 종교는 불교"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문화를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해야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이어 MZ세대의 '성지'가 된 더현대 서울과 성수동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교회를 리브랜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저자의 충고는 불교계도 귀담아들어 볼 필요가 있다.

"예배당 입구에 붙이는 현수막 하나 새롭게 디자인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리브랜딩이란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이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감각으로 우리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거치지 않으면 교회는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침례신학대학교와 홍익대 국제디자인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략 브랜딩 스튜디오인 인권앤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로 대한의학회,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서울대 국제백신연구소, 필그림하우스 등의 리브랜딩을 진행했다.

여수령 기자

2025년 동호불교 7월 백중 물품 행사 품목

물품 소진시 마감 됩니다 ※ 택배비도 포함된 가격이며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조상옷

쟈가드	100벌 이상	270,000원
천연펄프	100벌 이상	260,000원
추가옵션 (100개이상)		
버선		300원
양말		350원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속옷 세트	100개 이상	130,000원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20,000원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돈그림 짚신 (1세트 3족)	100족 1BOX	210,000원

종이지옷(봉투)

지옷	200개 1BOX	150,000원
수자	200개 1BOX	130,000원
동자선녀	200개 1BOX	150,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수입홀초

원백	20개	7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수입

7일초	20개	57,000원
5일초	24개	60,000원
3일초	40개	65,000원
1일초	90개	95,000원
15일초	12개	90,000원
30일초	4개	150,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국산홀초

원백	20개	75,000원
등신불	25개	75,000원

식물성 양초 최상급 -국산(흰색)

7일초	20개	90,000원
5일초	24개	95,000원
3일초	40개	95,000원
파라핀	1BOX(1.8L/12개)	65,000원

※칠보 개금 할인해 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7치소불 500불이상 한불당 12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백중 행사 용품 준비하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달력 7월 20일부터 주문받습니다

'매장 방문시 추가 할인 혜택 받아가세요'

오색종이	100개	50,000원	길배-대	10개	150,000원
삼베	50개	100,000원	영가만원등	100개	230,000원
삼베옷 (모자포함)	20개	120,000원	오색길배 (천왕길배)	30개	135,000원
군웅	50개	100,000원	비석위패 (향나무)	100개	270,000원
소창	50개	100,000원			

백중행사 기도 접수 받습니다-실사 25,000원(90X45)

보시용품 대량 구매 준비끝!!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예금주 :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401-1

석굴암은 어떻게 명작이 되었나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양정무 지음
사회평론 / 1만6800원

석굴암부터 백남준 '다다익선'까지
미술사학자 양정무가 꼽은 '명작'
"종교 의례서 느끼는 깊은 감정"

배희정 객원기자 hbpress@hyunbul.com



경주 석굴암 본존불. 사진 출처=국가유산청 홈페이지

석굴암과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모네의 수련 연작, 그리고 김환기의 유니버스와 백남준의 다다익선. 누구나 명작이라고 부르는 이 작품들이 어떻게 명작이 됐을까.

미술사학자 양정무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명작의 조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탐구한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펴냈다.

저자는 이 책을 '통사 중심의 미술사를 보완하는 책'이라고 설명한다. 2016년부터 써 오고 있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된 것과 달리, 이 책은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각 작품을 개별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에서 '미술이 꼭 아름다워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미술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이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술이며, 신비로움과 경외감, 종교적 의례에서 느끼는 깊은 단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미술 작품이야말로 명작의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저자가 꼽은 첫 명작은 석굴암이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에서 처음 본 석굴암에 압도돼 "머릿속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감탄은 단순히 규모나 형식 때문만은 아니다. 모스 경도 6으로 강철만큼 다루기 힘든 화강암을 자유자재로 다룬 표현력 때문이다. 한 번 깨지면 복구가 힘든데다 입자도 굵은데 꼬불꼬불한 나발과 부드럽게 흐르는 얼굴의 곡선을 완벽하게 조각해냈기 때문이다.

"눈썹부터 입술까지 유려한 선의 흐름을 보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유연하다. 화강암이란 까다로운 돌을 이렇게 다룰 수 있다는 데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책은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석굴암 본존불 뒤편에 미완성 흔적이 있다는 점을 짚어낸다. 또 시스티나 성당 벽화에 남은 어색한 손동작과 얼룩, 시력을 잃어가며 수련 연작을 완성한 모네의 절실함 등에서도 발견되는 명작의 불완전성을 언급하며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 작품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끈다"고 밝힌다.

750년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굴암의 천장과 125년 지어진 로마의 판테온 천장과 모양이 놀랍도록 닮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또 지구 반대편의 판테온이 석굴암 조성에 영감의 원천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서울대 이주형 교수의 주장도 소개한다.

저자는 석굴암 외에도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 모네의 '수련' 연작과 20세기 한국 예술 중 김환기의 '유니버스'와 백남준의 '다다익선'을 명작으로 꼽는다.

이 가운데 1003대의 TV 모니터를 불탑 형태로 높이 18.5m에 이르게 쌓은 대형 설치작품 '다다익선'을 소개하며, 백남준의 "미래의 모든 벽이 스크린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떠올린다. 저자는 오늘날 스마트폰 시대에 이 작품의 의미를 더욱 실감한다고 고백한다.

책은 당대에 불경하다는 비판을 받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조선 후기 겸재 정선(추정)의 그림에 등장하며 잊히진 않았지만 1910년대 사진엔 쇠락한 모습을 보였던 석굴암 사례를 들며, 명작이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즉, 명작은 시대와 갈등하며 수많은 굴곡과 오랜 시간의 도전을 견뎠기에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될수록 그 의미가 더욱 값지다는 점을 일깨운다. 저자는 이러한 명작의 형성 과정을 끊임없는 논쟁과 재탄생의 과정으로 보며 자신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위대한 미술, 즉 명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쟁 속에서 태어나 논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논쟁을 통해 작품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작품에 합당한 서사를 입히는 일이 미술학자의 숭고한 임무다. 그리고 미술사는 이런 논쟁을 학술적으로 풀어내는 학문이며, 나 또한 이런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겠다."

동화로 읽는 〈잡보장경〉



새로쓴 동화 잡보장경(하)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엮음
도서출판 한국불교아동문학회 / 1만5000원

〈잡보장경〉은 121가지의 짧은 설화를 통해 다양한 교훈을 전하는 불교 경전이다. 인연담과 비유담을 통해 착한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가르침을 전하며 불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이러한 〈잡보장경〉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권영주, 이하 문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새로쓴 동화 잡보장경〉 하권을 펴냈다. 문학회는 불교의 가르침을 문학 작품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널리 전하기 위해 1982년 설립된 이래, 2009년부터 경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작한 동화책을 꾸준히 간행해 왔다.

이번 책은 조계종 문화부의 지원으로 출간된 문학회의 17번째 동화책으로, 동화계 원로 신현덕 고문의 검토를 거쳐 지난해에 이어 원작으로 선정한 〈잡보장경〉을 개작했다.

〈잡보장경〉은 산스크리트어 원전을 원위(元魏)의 길가야(吉迦夜)와 담요(曇曜)가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이다. '잡다한 보물을 담은 경전'이라는 뜻의 불교 설화집으로 121편의 이야기가 10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연과 비유로 담고 있다.

이번 하권에는 권영주 회장의 '번개 천둥', '아라한이 된 악기'를 비롯해 문학회 소속 작가 43명이 새롭게 재구성한 71편의 동화가 담겼다. 특히 각 편을 책 2~4쪽 분량으로 간결하게 담아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전태일통신〉과 〈웹진 문화다〉 등에 작품을 연재한 전솔이 일러스트레이터가 컬러 삽화〈사진〉를 그려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다.



지난해 이어 하권 출간
8월 30일까지 독후감 공모

권영주 회장은 "〈잡보장경〉은 효도를 권하고, 보시 등의 선행을 닦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이끄는 경전"이라면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이 읽어도 마음가짐을 맑게 하고 삶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설화를 주제에 맞게 각색해 심혈을 기울여 새로쓴 이 책이 널리 읽혀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좋은 심성을 기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학회는 8월 30일까지 초등학교 전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쓴 동화 잡보장경〉 하권의 독후감을 공모한다.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의 분량이며, 시상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문학회는 7월 17일 공주 신원사에서 '아함경 동화 개작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문학회는 내년에는 〈아함경〉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책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배희정 객원기자

귀농한 기업가의 '마음공부'



시골 농부의 마음공부
김일문 지음
운주사 / 1만7000원

교법·수행 핵심 한 권에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는 길을 제시한다.

김일문 배달인성개발원 대표가 최근 펴낸 〈시골 농부의 마음공부〉는 삶의 기복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과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이끄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참수행을 망라한 책으로, 3년간의 집필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김일문 대표는 도시에서 기업 대표이사로 일하다가, 60대를 앞두고 마음공부에 전념하고자 귀촌한 자칭 '시골 농부'다. 30대 초반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에게 '일오(一悟)'란 법명을 받고 '삼세근(三世根)' 화두를 참구했고, 고심정사 불교대학을 수료하고 포교사 자격도 취득하는 등 불교 공부에 매진해 왔다.

'부처님의 교법과 수행의 핵심을 한 권에 담다'란 부제가 붙은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에는 저자가 접한 책과 강연 중 가장 뛰어난 내용을 선별해 담았고, 모든 인용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은 요약·정리해 주제별로 배치했고 곳곳에 저자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 특징이다.

책은 부처님의 출생과 출가, 고행과 성도, 전도 과정, 그리고 승단의 성립 과정을 다룬다. 또 초기 불교에서 강조된 호흡 수행을 아잔 브람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비단계와 16단계로 소개한다. 아울러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번역 오류와 교리의 오해가 반복됐음을 지적하고, 선불교가 강조한 돈점 논쟁이 인도 불교에는 없던 것임에도 중국과 한국 불교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책 판매 수익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면서 "이 책이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따르려는 이들과 고통과 혼란 속에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두에게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한다.

배희정 객원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오대산 월정사서 만나는 사명 대사 선필

〈禪筆〉

월정사 성보박물관 특별전
7월 12일~10월 19일 개최
친필 묵적 등 52점 전시돼
"사명 대사 선사상 확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명당 유정(惟政, 1544~1610) 대선사의 오대산 월정사 중수 435주년을 맞아 스님의 진영과 친필 묵적 등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월정사 성보박물관(관장 해운 스님)은 사명 대사의 월정사 중수 435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사명당 유정 대선사, 선필(禪筆)로 만나다'를 개최한다.

7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조선 중기 고승이자 승병장, 외교 사절, 서예가로 활동한 사명당 유정 대선사의 삶과 정신세계를 대사의 선필(禪筆)을 중심으로 조명하는 자리이다.

사명 대사는 오대산에 주석하며 폐허가 된 월정사의 중창불사(1587~1590)를 주도하고, 오대산사고 건립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오대산과 월정사는 수행과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특별전에 출품되는 전시유물은 사명 대사의 모습이 담긴 진영, 지니고 다는 것으로 전하는 원불, 대사의 글이 담긴 전적과 현판을 비롯하여 친필과 영인된 묵적 등으로 52점이 전시된다.



은해사 성보박물관 소장 '사명 대사 진영.' 정면을 바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회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사명 대사의 월정사 중창과 오대산사고'는 조선 중기 폐허였던 월정사를 5년간 중창하고, 오대산사고 설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오대산을 불교와 국가 기록 보존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사명 대사의 진영과 유품들이 전시된다.

정면을 바라보는 독특한 형태의 '은해사 사명 대사진영'과 초서병풍을 배경으로 한 '의성 대곡사 사명당 유정 진영' '영은사 사명당 대선사 진영' 등의 진영을 비롯해 사명 대사가 호지했던 포항 대성사 소장 '원불 및 원장'과 〈사명당대사집〉 〈오대산사적〉 등을 만나볼 수 있다.

2부 '사명 대사 선사의 붓끝, 문인의 향기'에서는 영주 부석사 소장 '부석사 안양루 중창기 현판 및 현판 탁본'을 비롯해 대사가 남긴 해서·행서·초서 유묵이 전시된다. 특히 밀양시립박물관 소장 〈용담취영잡영〉은 사명 대사가 해서·초서체로 시를 필사한 책으로, 단정한 해서부터 활달한 초서에 이르기까지 대사의 여러 서체를 함께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3부 '사명 대사 붓으로 평화를 이끌다'에서는 사명 대사가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이끌고 전후에는 외교 사절로 활약하며 포로 송환과 평화 회복에 기여한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4부 '시대를 넘어 계승되는 사명 대사의 정신'은 〈선가귀감〉 〈약사유리광본원공덕경〉 속 발문을 통해 대사의 선수행과 실천에 대한 사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설 〈사명 대사〉를 비롯 현대까지 이어지는 사명 대사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 대사의 정신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정사 성보 박물관은 "사명 대사는 임진왜란 이후 '구국의 영웅'으로 기억되었고 대사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명 대사의 선수행은 선필로, 붓으로 나라를 지킨 실천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지금도 깊은 울림을 주는 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전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지정

국가유산청 공고…경암 스님,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설행되는 생전예수재가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대표 원명 스님)를 보유단체로 인정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또한 경암 스님을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공고했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이 확인돼 국가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됐다.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로 인정된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봉은사를 비롯한 5개의 서울 소재 사찰들이 함께 참여해 2017년 6월 발족한 단체로, 재를 이끌어나가는 연행 능력 등이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봉은사 생전예수재 도량요잡 전경.

한편,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경암 스님은 2005년에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19년간 헌신해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에 앞장서는 보유단체와 전승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가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미래에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만해 제자 '무불 스님' 유묵 한자리에

만해기념관 '만해와 무불 스님 특별기획전'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제자 무불 스님의 유묵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만해기념관(관장 전보삼)은 8월 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만해와 무불 스님'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무불 스님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불교계의 큰 스승인 만해 스님의 제자로서 사경(寫經)과 근검절약, 선·교 병행 수행으로 일생을 정진했다. 스님은 금강산 유점사, 건봉사, 동학사, 유점사 등지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만해 스님을 존경하고 그 뜻을 실천해 온 선지식이다. 특히 〈금강경〉을 금니(金泥)로 사경해 통도사·해인사·송광사·범어사 등 사대삼보사찰에 보시하였고, 자신의 출가도량인 계룡산 동학사에도 직접 탱화를 그려 기증하는 등 불심 깊은 행보를 남겼다.


무불스님의 친필 유묵 '견색비간색(見色非干色)'

이번 전시에서는 무불 스님의 진묵(眞墨) 작품, 사경 필적, 영결식 사진 등 희귀자료가 다수 소개된다. 특히 유묵 작품 '견색비간색(見色非干色)'은 무불 스님의 수행 철학과 맑은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작이다.

전보삼 만해기념관장은 "무불 스님은 글씨보다 마음이 단정하고, 수행이 예술보다 깊은 분이었다"며, "이번 전시는 만해 스님과 무불 스님의 정신적 유대를 되새기고, 후학들에게 올곧은 수행의 가치를 전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만해기념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근대 불교사의 숨은 인물들을 조명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시는 상시 관람 가능하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031-744-3100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③ 무상

내려놓는 지혜와 평온

無 常

무상(無常)은 고(苦), 무아(無我)와 더불어 삼법인(三法印) 중 하나로, 붓다의 초기 핵심 가르침이다.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며, 모든 사물과 현상은 생성, 유지, 쇠퇴, 소멸의 흐름 속에 있다. 무상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한다는 진리를 말한다.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五蘊), 즉 몸과 마음은 모두 무상하며, 기쁨이나 불쾌감 같은 감정도 결국 사라진다. 의도와 욕망이 개입된 모든 관념과 현상은 인위적인 것이기에,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강경〉은 말한다.

"조작된 모든 현상은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하라."

이 경전은 몸과 마음, 권력, 재물, 명예, 인간관계 등 세상의 모든 것이 고정불변하지 않음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라고 가르친다.

서양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고, 베르그송 역시 '지속'이라는 개념을 통해 시간과 존재는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찰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이들이 무상의 가르침을 오해하여 세상을 덧없고 헛되게 여기고, 감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선한 의지를 포기하고 체념을 미덕처럼 여긴다. 심지어 은둔적인 삶을 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전은 무상의 진리를 통찰한 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무상의 참된 의미는 무집착이며, 자기 속박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

〈잡아함〉은 이렇게 말한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고, 인식은 무상하고, 심리 현상은 무상하고, 알음알이도 무상하니라.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도, 느낌에도, 인식에도, 마음 현상에도, 알음알이에도 염증을 낸다. 그리하여 탐욕이 사라지면 해탈을 성취한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유언했다.

"내 관을 운구할 때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보이게 하라.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하라."

시인 류시화는 이렇게 노래했다.

"잠들면서까지 살아갈 것을 걱정하는 자와
죽으면서도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자를
나는 보았네."

우리는 과연 무상 앞에서 자유로운가,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가?

〈화순 불암사 주지〉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最古)의 다경(茶經),
한재 이목의 「다부(茶賦)」!
수행자이자 다인(茶人)인 원학 스님의 해설로
차의 진면목을 만나다!

초의 선사의 『동다송』보다 340여 년 앞서 차를 예찬한 「다부」
그 속에 담긴 차향을 수행자의 삶에서 되살리다

「다부」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었던
한재 이목이 차와의 인연, 차의 미덕 등,
차에 대한 의견을 써내려간 부
(賦, 무언가를 아름답게 그려내는 문체의 글)이다.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는 차를 수행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해 온 우리 시대 최고의 다인(茶人)이라 할 수 있는 원학 스님이 「다부」를 옮기고 풀어낸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차분한 차향 속에 잊힌
정신성과 수행의 지혜를
다시 불러낼 수 있을 것이다.



내 마음속 차 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

한재 이목 지음
심이 원학 스님 번역·해설
224쪽 | 양장 | 22,000원



만법이 오직
한마음[一心]일 뿐이다!

회통불교의 진수를 담은 영명연수 선사의 대표작,
『주심부(註心賦)』 완역!

스님들의 스승,
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스님의 유작

연관 스님은 평생 선교일치(禪敎一致)의 삶을 살다간 이 시대 수행자의 표상이다. 직지사와 김용사 승가대학 강사를 거쳐, 조계종 최초 승가전문교육기관인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의 학장을 맡아 여러 후학을 양성했다. 또한 전국 선원(禪院)을 돌며 수행정진했으며, 역경에도 진력하여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불서들을 다수 번역·출간했다. 이 책은 원융한 수행자로서 자기 수행과 전법교화에 헌신했던 연관 스님의 마지막 번역이다.



오직 한마음이 무엇인가 ——
마음의 노래,
주심부

영명연수 지음,
연관 옮김
976쪽(양장)
5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AI로 되살린 스님 독립운동가

① 비구 스님들의 독립운동

불법으로 항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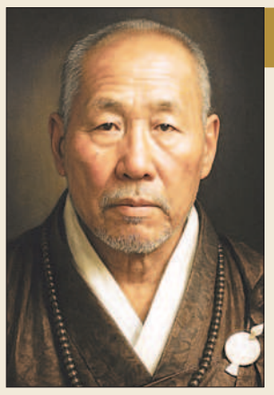
〈佛法〉

나라를 되찾기 위한 온 국민의 염원과 희생 속에서 맞이한 광복(光復).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 폭압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스님들의 활동을 조명한다.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교육, 조직,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권과 불법(佛法)을 지켜낸 스님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의 의미는 무엇인지 되새기게 한다.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불교계 독립운동가 중 대표적인 스님 일곱 분을 소개한다. 스님들의 삶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AI(인공지능)로 복원한 현대적 이미지도 함께 싣는다. 법명과 대중에 친숙한 속명을 함께 썼으며 차례는 생년 순이다. 다음 편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사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리=신중일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강대국의 종속국이 아니라 주인국이 되어라." (백용성 스님 유훈)



백용성 (1864~1940)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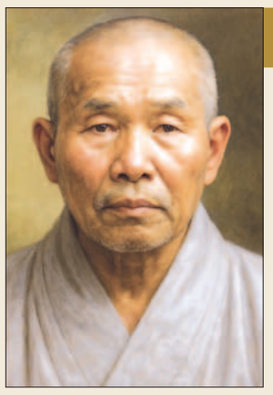
백용성 스님은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이자 한국불교 근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선지식이다. 식민통치 하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불교의 역할을 고민했다.

1911년 스님은 조선총독부 건너편에 사찰 '대각사'를 창건했다. 대각사를 중심으로 왜색불교 추방 운동에 앞장섰으며, 이곳에서 스님과 독립운동가들의 교류가 이뤄졌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1919년 3·1운동 당시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민족대표 33인에 이름을 올렸다. 스님은 현장서 체포돼 1년 6개월 옥고를 치렀다.

이후 스님은 민족정신을 되살리는데 불교가 중심이 되기 위해 불교 경전의 한글 번역에 주력했다. 〈금강경〉, 〈법화경〉, 〈능엄경〉 등 주요 경전 20여 종을 한글로 완역해 보급했고, 이는 당시 경전을 접하기 어려웠던 대중의 정신적 광복을 도왔다. 일요어린이법회, 거리 포교, 찬불가 보급 등 활발한 포교활동으로 불교의 대중화에도 이바지했다.

그는 일본인 승려의 한국 불교계 침투 등에 반대하는 '건백서 제출사건'을 주도하며 불교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분명히했다. 또 사원경제의 자립을 위해 1929년 경상남도 함양에 자급형 농장인 화과원(華果院)을 설립하고, 선농불교(禪農佛教) 운동을 펼쳤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해외 독립운동 단체에 보내기도 했다.

"일본이 끝내 과오를 뉘우침이 없다면 우리 민족은 최후의 1인까지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으로 혈전(血戰)을 불사코자 선언하노라." ('대동단 선언' 中)



백초월 (1878~1944) 스님

백초월 스님은 3·1운동 민족대표인 백용성 스님과 만해 스님이 수감된 후 불교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영원사 주지 소임을 맡아 재건 불사를 이끌던 스님은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서울로 올라와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경성 중앙학림(동국대 전신) 내에 한국민단본부(전국불교도독립운동본부)라는 비밀단체를 설립하고 본부장을 맡아 임시정부와 독립군 지원을 위한 군자금 모집을 주도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비밀 소식지 '혁신공보'를 간행했다.

1919년 11월 만세시위운동에 동참했는데, 이때 배포된 '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해 12월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 체포돼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1920년 2월에는 3·1운동 1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유학생들과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돼 강제 귀국 당했다. 이후로도 항일 비밀 결사 의용승군(義勇僧軍), 항일 비밀 결사체 일심교(一心教)를 결성해 군자금을 모금하다 수차례 체포됐다. 그럼에도 스님은 강연과 독립운동을 지속했다.

1939년 만주로 가는 군용 열차에 '대한독립만세'라는 격문을 쓴 사건으로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에도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던 스님은 일제에 체포되어 청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옥중 순국했다.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고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화가 없는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자라."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 中)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

1879년 충남 홍성군 결성면에서 태어난 만해 한용운 스님은 시대의 깨어있는 지식인이었고, 불교계 대표 독립운동가였다.

민족의 독립을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여긴 스님은 1919년 3·1운동 당시 불교계를 대표해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 스님은 독립선언서 인쇄·배포 등에 앞장섰고, 독립선언서 낭독 직후 체포돼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옥중에서도 일제의 회유에 흔들림 없던 스님은 출옥 후에도 항일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불교계 항일단체 '만당'에서 당수로 추대돼 활동했고,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등 다양한 민족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스님은 문학을 통해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데도 매진했다. 1926년 발표한 시집 〈님의 침묵〉은 민족의식과 불교정신이 결합된 저항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시는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풀어낸 작품으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 제1회 졸업생이기도 한 만해 스님은 불교 개혁 운동을 통해 불교계의 변혁도 주도했다. 불교 홍포와 민족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월간 잡지 '유심'을 창간했고, '조선불교유신론' '불교대전' 등을 간행해 불교의 현실 참여를 이끌었다. 조선불교청년회 총재를 맡아 청년 불자들 시대정신을 일깨우기도 했다.

오직 민족의 독립에 생을 바친 스님은 1944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조국 해방을 1년 앞두고 입적했다.

"대중이 읽을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 대중이 당장 이해할 용어를 만들어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건지는 지름길을 마련하기에 인색하지 말자." (해인사에서 열린 '역경용어제정 회의' 中)



운허 용하(1892~1980) 스님

운허 용하 스님은 일제 침략에 맞선 항일투사이자 인재 양성에 매진한 교육자였고 불교 경전의 우리말 번역에 헌신한 수행자였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운허 용하 스님은 한일 강제 병합 후 고향을 떠나 평양 대성학교에서 2학년까지 수학했다. 1912년 1월 만주로 건너간 스님은 봉천 동창학교 교원으로 근무했고, 같은 해 6월 항일단체인 대동청년단에 가입해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나섰다.

3·1운동 직후에는 민족운동단체 한족회의 기관지 한족신보(韓族新報) 사장으로 신문을 간행했고, 1920년 2월에는 독립투쟁단체 광한단(光韓團)을 조직했다.

국내 조직과의 연결을 위해 입국했다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강원도 양양 봉일사로 은신한 것을 계기로 1921년 경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29년 다시 만주로 건너가 봉천 보성학교 교장에 취임했고, 1930년 9월 조선혁명당에 가입해 조국광복을 위해 활동했다. 1936년 남양주 봉선사에 홍법강원(弘法講院)을, 해방 후인 1946년 4월에 광동중을 설립하는 등 평생 교육 불사에 헌신했다. 1953년에는 애국동지원호회가 편찬한 〈한국독립운동사〉의 출간에 참여했다.

운허 스님을 기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경(譯經)'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경전의 한글 번역을 평생의 원력으로 삼고 1964년 개원한 동국역경원의 초대 원장을 맡았다. 한국전쟁으로 불탄 봉선사를 재건하며 대웅전에 '큰법당'이란 한글 편액을 걸었으며, 1961년 국내 최초로 〈불교사전〉을 편찬했다.



운암 김성숙(1898~1969) 스님

운암 김성숙 스님은 1916년 양평 용문사에서 출가해 남양주 봉선사에서 월초 스님 문하에서 수행했다. 봉선사에서 3년간 머무르며 '성숙'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민족대표 33인인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과 손병희(1861~1922)를 만난 김성숙 스님은 만해 스님의 지도 아래 3·1운동에 뛰어들었다.

이순재, 김석로, 강완수 등과 함께 비밀리에 독립문서를 만들어 일반 대중에게 살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파리강화회의에서 12개국이 독립국이 될 것을 결정하였으므로 조선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격문을 작성해 배포하는 등 시위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출소해 봉선사로 잠시 되돌아갔으나 곧이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합법적 단체인 조선무산자동맹, 조선노동공제회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충북 괴산에서 일어난 소작쟁의의 진상을 서울의 본회 및 각 지방의 지회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했다.

광복 후에는 혁신정당을 조직해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1969년에 별세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8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범산 김법린(1899~1961) 스님

"일본은 국가의 가장 고귀한 임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 가치는 이에 의해 희생될 수 있습니다."

1927년 2월 10일 벨기에 브뤼셀 에그몽 궁전에 일본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한 한국 청년의 유창한 프랑스어 연설이 궁 안에 울려 퍼졌다. 당시 28세 청년이자 4인의 한국 대표단 중 한 사람으로 연설에 나선 범산 김법린 스님의 목소리였다.

스님이자 독립운동가·교육자·정치인이었던 김법린 스님은 일생을 독립운동, 민족 교육계몽, 사회참여를 실천했다. 1919년 만세운동 후 중국 상해로 망명, 한국민단본부 대표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했다.

1928년 불교계의 요청으로 귀국해 중앙불교학교 철학 교수, 불교 교학 강의, 불교청년회 활동을 통해 인재육성과 계몽운동에 참여했다. 1930년에는 만해 스님과 항일비밀결사조직 '만당'을 창당, 우리말 연구와 보급에도 진력했다. 광복 후 불교 교단 총무원장, 관선입법의원, 문교부장관, 민의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건국의 기틀을 다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지성인으로 평가받는다. 혜화동에 있던 모교를 동국대로 승격하는데 힘썼고 동국대 4대 총장을 지내다 1964년 심장마비로 순직했다.



효당 최범술(1904~1979) 스님

효당 최범술 스님은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해인사 지방학림에 재학하면서 서울에 유학 중인 최원형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동지들과 함께 1만여 매를 인쇄, 합천·의령·진주·사천 등에 배포하면서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만세시위를 주동했다.

일본 동경 유학시절인 1920년대에는 월간 '불령선인'을 발간한 것이 발각돼 3년 여간 도쿄 각 구의 경찰서유치장을 옮겨 다니며 고문을 당했다. 1931년 항일비밀결사조직 '만당'에 가입해 활동하다 붙잡혀 징역 6월형을 받았다. 그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검돼 투옥됐다. 조선불교위문사로 중국에 다녀온 해이기도 한 1938년 후반 '만당' 당원이 하나씩 구속되면서 최범술 스님 역시 검거돼 경기도 경찰부에 4개월간 피검됐다. 1942년 7월 김법린 스님 등과 해인사·다솔사 등에서 수강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1943년에는 단재 신채호 문집 자료를 수집하던 것이 적발돼 경남도 경찰국에 13개월간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차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초의 선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인물도 바로 최범술 스님이다. 경남 사천 다솔사에서 차나무를 심어 차를 직접 만들고 한국 최초의 상업판 단행본인 〈한국(韓國)의 차도(茶道)〉를 저술해 한국 차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차문화를 대중화시켰다.

‘관광 진흥’ 명목,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안된다

특별기고

7월 14일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의 ‘세스페데스공원’에 다녀왔다. 2019년 2월 8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 처음 갔을 때 SNS계정에 “이게 정신 제대로 박힌 인간들이 할 짓인가”라고 썼던 기억이 난다.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Gregorio de Cespedes)는 스페인 출신 예수회 신부로,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 12월 말 침략군이 주둔하고 있던 웅천왜성에서 1년 정도 머물었던 인물이다. 그가 오게 된 배경에는 일본군의 주요 지휘관 셋 중 한 명인 천주교도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있었다. 그의 부대원들은 모두 천주교도로 이루어져 있었고 전투에 나설 때에 항상 십자가와 예수회 문장(紋章)이 새겨진 깃발을 앞세웠다. 세스페데스는 웅천왜성에 머무는 동안 일본군 교도들을 위해 미사를 진행하고 세례를 주는 등 침략자 왜군의 종군신부로 복무했다.

천주교 마산교구에서는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최로 2009년부터 거의 매년 웅천왜성에서 산상미사를 봉헌하며 그를 한국 천주교 최초 사목자로 부각시켜왔고, 창원시는 수억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 현재와 같은 공원을 조성했다. 2016년 2월에 열린 공원 개장 행사에는 스페인과 중남미의 천주교 신도 비중이 높은 국가의 대사들과 스페인의 세스페데스 고향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세스페데스 공원 조성에는 심지어 정의구현사제단 등 천주교계 일부에서 “임진왜란의 치욕은 기억하지 않고 단순히 왜군을 따라 온 서양인 신부 1명을 기념하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마산교구에서는 “어두운 전란 속에 하느님의 손길이 세스페데스를 통해 섬광처럼 당시 조선 땅에 슬쩍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며 창원시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압박했다. 포르투갈에서 세스페데스 관련 자료를 통해 ‘세스페데스가 임진왜란의 참상을 유럽에 알렸음’을 확인했다며 “그는 군종신부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다. 창원시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 “16세기에는 지금과 같은 종군신부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 사업을 강행했다.

광주 등 선교기지 세계유산化
선교기지 등재 협의회 구성
‘제국주의 선교’ 악명 지우기
‘기독 표심’ 갈급 정치인들
등재 약속 공약 난무 우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조선을 침략한 왜군 부대에 장기간 머물면서 그 부대원들을 위해 미사를 집행하고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종군신부’가 아니면 ‘평화 전도사’였단 말인가. 사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이게 정신 제대로 박힌 인간들이 할 짓인가”라고 했던 게, 흥분해서 나온 지나친 말이 결코 아님을 누구든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창원 한 군데에서 단 한 차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가릴 것 없이 ‘민족의 역사’와 자부심 등은 아예 팽개친 채 ‘관광 진흥’을 이유로 ‘정신 나간 짓’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에서는 “프랑스 군대를 보내 조선 정부를 무너뜨려 달라”는 비밀 편지를 써서 보냈다가 전달 과정에서 발각돼 처형당한 황사영이 숨어있던 배론에서 박달재까지 7km를 순례코스로 조성하면서 혈세 53억원을 쓰는가 하면, 충남 당진에서는 조선 고종의 할아버지인 남연군 묘소 도굴범 오페르트가 배에서 내린 곳을 ‘최초의 서양음악 전래지’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열기도 했다.



6월 20일 열린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광주 남구, 대구 중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 · 김제시, 전남 목포시 · 순천시 등 8개 지자체는 지역 내 선교기지들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광주 남구청 배포 보도자료

그런데 최근 세스페데스공원 조성이나 황사영 순례길 조성 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걱정스럽다. 지난 6월 20일 ‘광주 남구·대구 중구·충북 청주시·충남 공주시·전북 전주시와 김제시·전남 목포시와 순천시’가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사업 추진 근거에는 ‘근대 개신교 선교기지’가 “한국의 근대화 추진의 원동력이 된 근대식 교육·의료 기술·건축 등의 전래 과정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고 한 국가유산청의 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세계역사를 폭 넓고 깊게 공부하거나 ‘동서고금의 역사’를 성찰하며 자신의 세계관·역사관을 세운 사람이라면, 과거 제국주의 시절 기독교(천주교와 개신교 모두)와 제국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해서 어떤 악행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알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가릴 것 없이 제국주의 군대와 함께, 때로는 군대보다 앞서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가 침략의 기반을 닦았다. 그 과정에서 그 지역 선주민들과 갈등이 불거지면, 제국주의 세력은 어느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내세워 침략군을 보내 식민지로 삼아 수탈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널리 퍼져있었다. “백인들이 처음 올 적에 그들 손에는 기독교 성서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땅이 있었다. 이제 우리 손에는 기독교 성서가 있지만, 저들에게는 땅이 있다.”

결국 식민지 확장과 수탈에 나섰던 제국주의 세력과 기독교는 일심동체(一心同體)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와 세력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학교와 병원 등을 많이 세워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예로 든 아프리카 속담이 말해주듯이, 이런 사업의 주 목적은 한국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선교에 유용한 수단으로 삼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심하게 말하면, 오늘날에도 브라질 아마존 밀림 깊은 곳에 남아 문명세계와 접촉을 피하고 있는 선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설탕 포대 등 생필품을 매달아놓아 그들을 유인하다가 그들이 이런 물건에 익숙해지면 독약을 섞어서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그 기본 바탕이 다르지 않다.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와 그 배경에 있는 일부 기독교 세력의 논리대로라면, 아마존 밀림 선주민들을 유혹하는 데에 악용한 설탕 포대 등도 훗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자’는 운동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명년 2026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 그리고 3년 뒤인 2028년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게 된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는 전혀 관계없이, 거의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기독교도들의 단결된 표를 얻으려고 미친 듯이 찾아 헤매면서,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쏟아져 나올까봐 걱정이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사적 추모 선교사 묘역이 세계유산 가능한가

‘기독교 선교기지’ 살펴보니

지난 6월 20일 광주 남구, 대구 중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김제시, 전남 목포시·순천시는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열고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다.

협의회는 각 지역별로 산재된 기독교 교회, 병원 학교 등을 ‘기독교 선교기지’로 규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들이 팔을 걷고 적극적으로 선교기지의 세계유산 등재에 뛰어든 것은 ‘지역 관광 진흥’의 목적이 크다.

실제,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권은 물론 서양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성지순례를 오도록 선교기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나서 기독교 선교 성지순례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의 전파가 한국 근대화의 동력이 됐다는 대중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협의회가 밝힌 8개 선교기지 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의 선교기지는 교회와 학교, 병원을 비롯해 선교사 사택, 묘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병원, 학교, 교당 등 중심
선교사 사택, 묘역도 포함
묘역, 개인 추모 공간일 뿐
‘OUV’ 기준 충족 의문점
‘제국주의 선교’ 비판 여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이하 OUV)’ 10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기독교계는 이 중 2번 기준 ‘인간의 중요한 교류’와 3번 기준 ‘문화·전통, 문명의 독보성’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선교사들이 전한 영어·서양의학 등은 조선사회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제국주의 선교’라는 양면성도 존재한다. 또한 선교사 개인을 추모하는 묘역들이 OUV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근대 제국주의적 역학 관계 등이 일체 고려되지 않은 채 선교사 묘역을 포함한 선교기지의 세계유산 등재가 현실화 되면 ‘선교사=근대 문화 개척자’로 인식될 공산이 크다.

실제 개신교계의 선행 연구에서조차 서구 문명화와 관련된 초기 한국 선교의 양면성과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들은 상당 부분 존재한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은 조선 왕실과 조정의 고문 역할을 하며 구한말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 관여했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에서가 아니라 미국이 가진 힘에 대한 존경(이향순)” 때문에 가능했다.

이향순 박사는 ‘미국 선교사들의 오리엔탈리즘과 오리엔탈리즘과 제국주의적 확장’에서 “기독교의 선교는 제국주의적 확장 내지 침략에 맥이 닿아있다. 선교사들이 기독교화를 내세웠다면 식민주의자들은 문명화를 외쳤다”며 “기독교 선교는 제국주의적 확장과 동시적으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신중일 기자



서양 철학자와 동양 승려의 만남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서로 다른 전통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상가가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윤리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

피터 싱어 · 스자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신국판/284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간단하고 직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통찰의 체험

현대 명상 지침서 가운데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수십 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명상을 배우는 사람에게 여전히 신선하고 살아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신국판/248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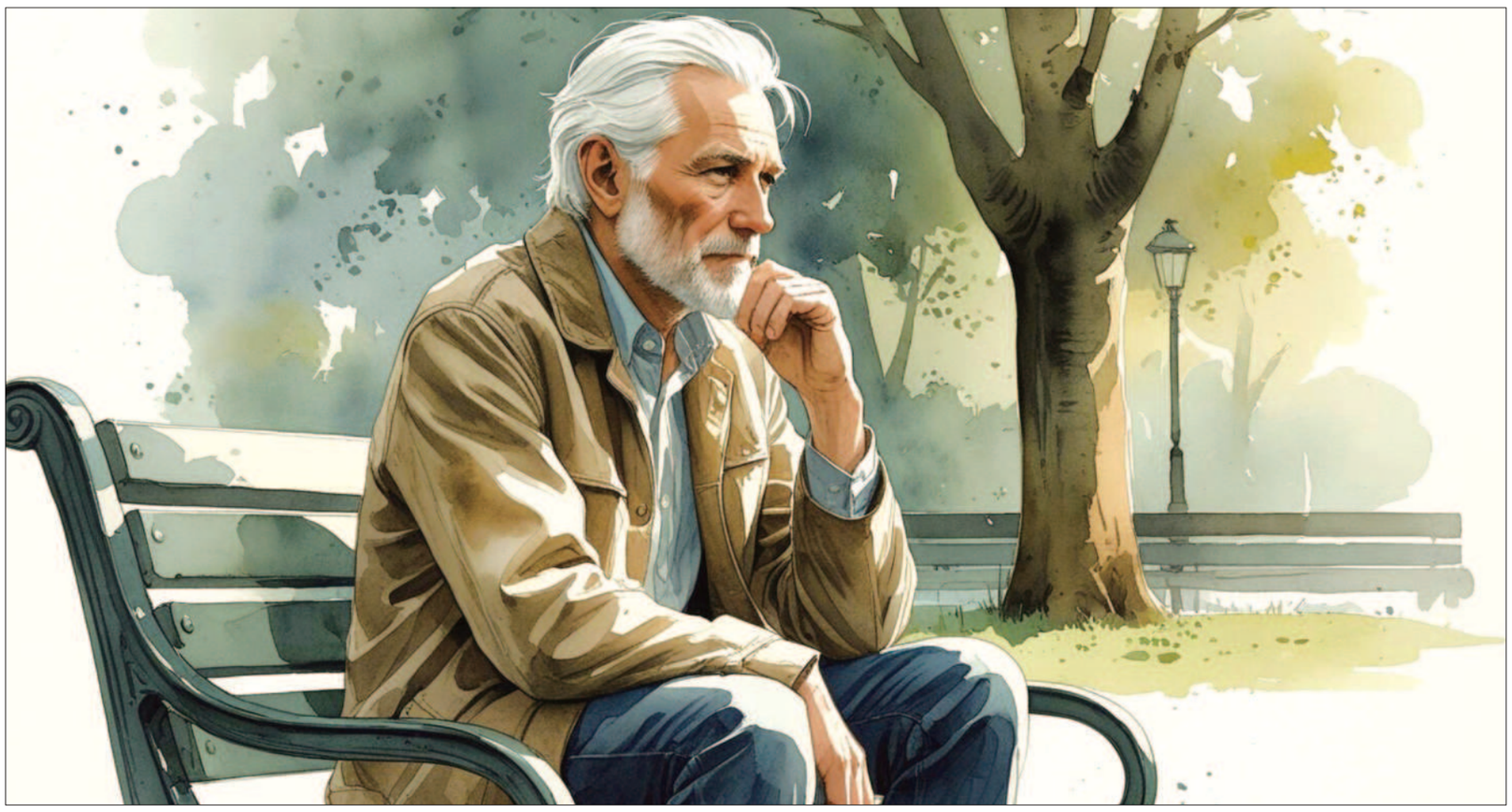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23 진정으로 평화롭다면



▶한줄 요약
놓음(방하착) 명상은 욕심과 성냄, 망상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삼 일 닦은 마음은 한없는 보배다

[오늘의 명상]
날마다 뜨는 해는 흐르는 시냇물 같아
오늘인가 했더니 어느새 내일이 오늘.
날마다 탐하고 성내며 살아온 세월
원하는 것 아직도 남았는데 머리부터 희었네.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여보아라 청춘들아. 네가 본래 청춘이면 낸들 본래 백발이냐. 백발 보고 웃지 마라."

청춘이 어느새 백발이 되었다는 회심곡의 내용은 세월이 화살보다 빠르다는 것을 빗댄 비유입니다. 한곳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 그 물이 그 물 같아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눈앞의 물은 이미 강물에 닿아 있습니다. 시간도 이와 같아서, 지금 흘러가는 순간을 깨닫지 못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머리는 희어지고, 인생의 뒤편에 다다라 있습니다.

무정(無情)한 세월이라 했습니다. 시간은 그 누구와도 주고받는 정(情) 없이 조용히 흘러갑니다. 내일, 내년, 그리고 내생(來生)까지 벌써 코앞에 와 있는 듯합니다.

"삼일수심천재보(三日修心千載寶) 백년탐물일조진(百年貪物一朝塵)."

〈자경문(自警文)〉에 나오는 야부 도천(冶父道川)의 게송입니다.

"삼 일 닦은 마음은 한없는 보배요, 백 년을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에 이슬이다."

이 게송은 마음을 닦아 본래의 자성을 깨달으면 시간은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과 성냄, 망상으로 지내온 시간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결국 욕심이 빚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욕심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고,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됩니다.

삼독심(三毒心), 즉 탐욕, 성냄, 망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없고, 아쉬움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세월이 오고 가더라도 개의치 않고, 머리가 희어져도 상관없으며, 오늘도 내일도, 내생도 결국 지금 이 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하고 평화롭다면, 시간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욕심과 후회를 내려놓는 마음을 기르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명상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삼독심을 가라앉히고,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놓음(방하착) 선명상은 이러한 마음을 기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행입니다. 놓음 명상은 욕심과 성냄, 망상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삼독심을 잠재우고, 욕심과 후회를 내려놓으며,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명상]
힘들게 올라오니 그 희열도 만만치 않으나
내려갈 일이 그리 수월치가 않구나.
오르고 내림에는 고통과 희열이 함께 따르는 법
나의 인생은 어느 각도의 경사를 오르고 또 내려가고 있는가.

오늘의 글은 인과(因果)의 속성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불교의 근본 목적, 즉 성불(成佛)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괴로운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괴로움은 왜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분별심(分別心)에서 비롯됩니다. 분별심이란 이렇다 저렇다 하며 두 가지의 반대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 분별이 생길까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반대의 하나가 동시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은 나쁜 마음에 의해 생기고, 나쁜 마음은 좋은 마음 때문에 생겨납니다.

큰 것은 작은 것에 의해 커지고, 작은 것은 큰 것에 의해 작아집니다.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이 생기고, 동전의 앞이 있으면 뒤가 생기는 것처럼, 이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 역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인과(因果)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즐거움, 기쁨, 행복을 추구하지만, 이들을 구하면 구할수록 필연적으로 괴로움, 슬픔, 불행 또한 그림자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윤회(輪廻)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 **삼독심 내려놓으면 걸림 없어져**
> **진정 평화로우면 흔들리지 않아**
> **기도와 명상 통해 평상심 유지를**
> **방하착 선명상으로 망상 내려놓길**

특히 인간관계, 사회적 현상, 국가적 상황, 세계적인 문제 모두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옛날과 지금, 동과 서를 막론하고 인과적 현상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평화, 흥망성쇠의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가정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인 인과적 인연의 결과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관점이 다르다면 충돌이 생기고, 때로는 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은 순전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목적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사슬을 끊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적 흐름 속에서도 내 마음이 편안한가, 괴로운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어떠한 현상에 부딪치더라도 감정이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감정조차 나쁜 감정을 부르기 때문에, 감정이 머물지 않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별된 두 마음은 극락에서도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분별을 일으킵니다. 분별 없는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 자체로 평화로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욕보살로 계실 때, 가리왕에게 온몸을 난도질당하면서도 분별된 감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몸에 상처 하나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인과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심(信心)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임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명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선멈춤 선명상은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고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속의 분별을 내려놓고, 인과의 흐름 속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성불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⑩ 승일(勝日, 勝一) 스님



▶한줄 요약
승일 스님은 현진 스님의 계보를 계승하면서 50여 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만든 조각승이다.

호남·영남 넘나들며 17곳에 불상 조성

17세기 중반 시·군을 대표하는 사찰의 대웅전이나 명부전 및 부속 암자에 봉안할 불상을 주도적으로 만든 조각승은 3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오랜 기간 전국을 무대로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은 승일 스님이다.

조각승 승일 스님에 관한 가장 빠른 기록은 1622년에 당대 최고의 조각승인 현진 스님, 수연 스님, 응원 스님 등이 왕실에서 발원한 내원당(內願堂)인 자수사와 인수사에 봉안할 11구의 불상(현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국립중앙박물관, 목조석가여래좌상은 서울 칠보사와 안동 선찰사에 각각 봉안, 보물)을 제작할 때 쇠를 다루는 야장(冶匠)이나 조각승 17명 가운데 마지막 위치로 기재돼 있다.

이를 통해 1622년 불사 때 승일 스님은 다른 조각승들에 비해 숙련도나 법납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승일 스님은 1628년 양산 내원사 조계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조성할 때 현진 스님과 연묵(衍默) 스님 다음에 이름이 적혀 있고, 현진 스님과 1629년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이나 1630년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을 제작할 때 부화승으로 참여했다.

그 후 스님은 1634년 수화승으로 밀양 표충사 목조삼전패, 1635년 부화승으로 무염 스님과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1636년 수화승으로 제천 경은사 목조문수보살좌상(도 유형문화유산), 1637년 현진 스님과 성주 명적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1639년 청헌 스님과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사(四)보살상(보물)을 만들었다.

이후 승일 스님은 수화승으로 1644년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나한상 및 무주 보현암 불상(조성기만 있음), 1646년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보물), 1648년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목조약사여래좌상(보물), 1651년 서울 봉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목조약사여래좌상(보물), 1654년 상주 용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57년 무주 북고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도 유형문화유산), 1658년 문경 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60년 경산 용밀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서울 청룡사 봉안, 보물), 1665년 상주 용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대구 서봉사 봉안, 시 유형문화유산),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과 시왕상(보물), 1668년 김천 직지사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 1670년 김천 고방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도 문화유산자료)을 만들었다.



승일 스님이 만든 서울 봉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51년).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승일 스님의 전형적 불상 형태를 보이는 김천 고방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70년).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승일 스님이 만든 불상 중 가장 특이한 불상인 제천 경은사 목조문수보살좌상(1636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이와 같은 문헌을 중심으로 승일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스님은 1590년대 후반에 태어나 1610~1620년대 현진 스님이 제작한 불상에 보조 화승으로 참여한 후, 1634년에 밀양 표충사 목조삼전패를 주도적으로 제작했다. 그 뒤 1630년대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염 스님이나 청헌 스님이 주도한 불상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1670년까지 호남과 영남을 넘나들면서 17곳의 사찰의 대웅전이나 명부전 등에 불상을 만들었다.

17C 현진 스님 이은 도잠 스님 스승
청헌 스님 · 무염 스님과 공동 작업
경은사 · 쌍계사 불상 조성 수화승

승일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현진(玄眞, 이하 활동 시기 1604~1639)→승일(1622~1670)→응혜(應惠, 1634~1678)·희장(熙藏, 1636~1667)·계찬(戒贊, 1643~1671)·도잠(道岑, 1643~1688)→보해(寶海, 1646~1685)·자규(自圭, 1644~1680)로 이어져 1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계보이다.

승일 스님이 제작한 불상 가운데 가장 특이한 불상은 제천 경은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이다. 문수보살상은 높이 30㎝의 소형 불상으로, 나무 하나로 만든 일목식(一木式)이다. 문수보살좌상은 신체에 비해 얼굴이 크고, 어깨가 좁은 편이며, 얼굴과 상반신을 앞으로 숙여 자세가 구부정하다. 두건 사이로 흘러내린 검은 보발(寶髮)은 둥그렇게 땋아 두 가닥으로 갈라져 양어깨에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다. 얼굴에는 가늘게 뜬 긴 눈, 콧날이 오뚝한 큰 코, 미소를 머금은 작은 입에서 원만하고 자비로운 인상을 느낄 수 있다. 착의법은 대의 안쪽에 부견의(覆肩衣)를 입고,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 안쪽 옷자락이 반원형으로 겨드랑이까지 늘어지고, 나머지 대의 자락이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복부에 오른쪽 어깨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옷자락이 늘어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 자락은 복부 중앙에서 윗부분이 반으로 접혀 바닥까지 넓게 펼쳐지고, 좌우로 두세 가닥이 사선을 그리며 늘어져 있다. 왼쪽 무릎 위에 나뭇잎 형태의 소매 자락이 늘어져 있다. 왼쪽 어깨에서 한 가닥의 옷 주름이 길게 늘어져 끝단이 꽃잎 형태로 마무리되고, 뒤쪽으로 넓은 옷 주름이 물결같이 펼쳐져 있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는 매듭을 묶은 끈이 팔자형(八字形)으로 늘어져 있다. 손은 배 앞에서 양손을 맞댄 선정인(禪定印)을 취하고 있다.

보살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는 1636년 12월에 문수보살(文殊菩薩)을 승일(勝一)이 제작하고, 대좌를 혜윤(惠允)이 조성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당시 증명은 두인(斗仁)이고, 지전은 조행(祖行)이며, 화주는 김춘생(金春生)이다. 이 시기에 두인 스님과 조행 스님과 관련된 기록이 부여 무량사에 현전한다.

임진왜란 이후 무량사는 1624년부터 대대적인 재건이 시작돼 1627년에 괘불 조성, 1633년에 극락전 중건과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조성, 1636년에 범종(梵鍾)을 주성(鑄成)했다. 이 가운데 두인 스님은 1636년에 주성된 범종 명문에 세 번째 언급되고, 지전(持殿) 조행 스님은 1627년 부여 무량사 미륵불괘불도(彌勒佛掛佛圖)와 1633년에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36년에 범종 주성 시 지전으로 적혀 있다. 지전이라는 소임은 불전이나 법당에서 예불을 맡은 스님을 지칭한다. 이러한 역할은 동일한 시기에 여러 사찰에서 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경은사 목조문수보살좌상의 원래 봉안처는 부여 무량사로 추정할 수 있다.

승일 스님이 만든 전형적인 불상 형태는 김천 고방사 극락전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가 102㎝, 무릎 폭이 71㎝인 중형불상이다. 목조불상은 약간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숙인 머리는 나발(螺髮)이 촘촘하고 육계(肉髻)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며, 머리 정상부에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간계주(ㅿ)가 있다. 둥글면서도 약간 길쭉한 얼굴에는 반쯤 뜬 눈, 오똑한 코, 선명한 인중과 작은 입 등 엄정하고 원만한 상호를 하고 있다.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고 어깨가 넓고 허리가 길며, 앉은 자세를 앞으로 넉넉히 내었고 무릎 너비가 어깨너비보다 넓어, 안정된 신체 비례를 보인다.

두꺼운 대의 자락은 오른쪽 어깨에서 반달 모양으로 걸친 후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다른 대의 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특히 하반신에 걸친 가장 바깥쪽 대의 자락은 초승달같이 자연스럽게 늘어지고, 그 뒤로 두 가닥의 옷 주름이 펼쳐져 있다. 양손은 무릎 위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취하고 있다.

승일 스님이 만든 불상은 얼굴에서 풍기는 온화한 인상이나 착의법 및 수인(手印) 등이 유사하고, 그의 제자인 응혜 스님과 희장 스님 등이 계승했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한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1+1 소비자가 ~~₩99,000~~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40호 | 15 | 전면광고

모든 쌓임[蘊]과 덮힘[蓋]이 원수가 되지 않게 하며
모든 여섯 감관에 괴로움이 없게 하며
온갖 세간을 괴로움이 아닌 것으로 되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300평 • 위치 : 경남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법당 : 30평 외
- 매가 : 15억 • 매가 : 30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대지 임야 등 약 1200평
- 대웅전 요사채 2동 약 86평
- 가액 : 13억 5000만원(절충가능)

010-5383-6827
010-3339-0086

사 찰 안 내

- 포교원 하실분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매매가격 : 5억5천
- 대지 107평(354㎡) / 건평 150.2평
- 지하 24.4평 / 1층 67.4평
  2층 58.3평 / 옥상
- 1층과 지하 전세줌 / 1층 화장실1
  2층 법당1 방2 주방 거실 화장실2

010-3042-08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사찰
- 평수 : 18513㎡(5600평)
- 매매 : 17억

010-4646-25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 땅 대지 86평 대웅전 목재 20평 삼존불
  산신각 2평 요사채 20평 마당
  약사여래불 방3 화장실 3
- 가액 : 1억 6천만원

010-9137-3838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부지 2013㎡
- 법당 약40평, 요사채 약60평, 창고 약20평
- 산세 및 풍광 좋음
- 주차장 넓음
- 매매 : 6억 5천만원

010-3466-9991

사 찰 안 내

기도하며 한가하게 살기좋은 수행처

- 대지 85평 중 인법당 16평
- 조립식 요사채 12평
- 가격 : 3800만원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온천길 114-3

010-8987-4570

사 찰 안 내

같이 동행할 스님을 찾습니다 (방편이 있는 스님 환영)

- 면적 : 3500평
- 극락전 30평(전통전각), 산신각(전통전각), 종각(전통전각), 미륵입불
- 요사채 방6개, 보증금 2000만원, 달세 없음

네이버(황종사)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동고령ic부근
- 230평 법당18평
-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과 용왕불 3필지
- 가액 : 4억7천
- 절충가능

010-3540-8431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화암리 광대사
- 대지 1000평, 법당 15평 요사채 25평
- 명산 도량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0-7395-154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30평
- 법당, 소불당 삼성각 용왕당
- 사시사철 자연수, 상수도 전망 아주좋음
- 매매 또는 전월세 가능

010-5033-14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대동안길 32번지 해동선원
- 신축법당 25평, 요사채 50평
- 산신각 사리전 나한전 용왕당
- 총 290평 및 국유지 720평
- 가액 : 3억 6천 만원(절충가능)

010-3596-008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00평 / 임야 : 3600평
- 건물 : 대웅전55평 공양실35평 종무소10평 요사30평
- 천연 지하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7억원

010-6764-0034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1000, 월세 15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50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가야산 아래 백운동 60평
- 1가구 2주택 해당 안되는 공기가 매우청정한 토굴
- 거실, 방2, 화1 군불넣는 잘지어진 황토방1
- 가액 : 6900만원

010-9468-012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좌수영로 토곡사거리 도로 옆
- 31평 규모
- 법당, 주방, 친견실, 화장실, 방1개
- 시설비 : 700만원 (보증금 1500/50)

직통 010-5014-7570

사찰(급)안내

- 밀양 전망이 아름다운 암자
- 246평 (법당, 약사여래, 산신각)
- 요사채 25평(방3개, 화장실2개, 거실, 공양간)
- 태양광 시설 등 비품 일체
- 스님 부재로 급매
- 가액 : 1억 2천만원

010-7572-8526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전국 산중 사찰 중 개곡 있고, 숲이 많고, 터가 넓고, 도로좋은 곳
- 산중사찰 중 토지 넓은 사찰
- 수목장, 납골당 가능한 곳(경북)
- 도심 포교당 1억에서 3억
- 도심 사찰 중 15억 이내
- 사찰함께 운영할분(템플스테이 등)
- 전통사찰 중 문화재보유 사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충남 · 북
- 1억~2억 금액 암자(토굴)
- 2~3년 사찰임대 놓으실분 구함 2~3년 후 임대한 스님 구입확실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치 : 장호원 감곡kt역 10분거리
- 대지 1100평 대웅전
- 60평 종각, 요사채3동, 휴게실 다도, 산신각
- 신비스런고 유명한 거북바위소원돌, 찜질방, 연못 12m해수관음보살, 대형용, 요양원 토목공사 완공

*상담 가능(월수금은 기도중 입니다)

010-5883-225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천안 생활권)
- 법당 30평/공양간 15평 요사채 20평
- 가액 : 2억 8천(융자5천포함)
- 대원사

010-5416-0850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전층 사용 가능 (1층 45평, 총 90평)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5000만원(집기 일체, 절충가능)

010-4179-62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90평 건물,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5평
- 조용하고 기도정진 좋은 곳
- 은행, 병원, 마트 등 가까움
- 가액 : 5억원(절충 가능)

010-2458-665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2층 (법당 포함 35평)
- 도시가스 사용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4만원
- 시설비 : 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416-10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길곡면
- 490평, 건평 90평, 과수 20수 2층 건물, 2층 법당
- 대문 앞 버스정류장
- 굿당 가능
- 가액 : 4억 9천만원(절충가능)

010-4311-3499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국내외 자비봉사단. 육법공양단. 불교 합창단

생활불교 실천에 잠시의 여유를 갖고 그늘진 곳 중생들에게 힘이되어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앞장 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십니다.

02-733-56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230평
- 가액 : 2억3000만원(가격절충)
- 종교부지 / 주차 5대
-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등

010-9389-7457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안내

1540호 | 16 | 전면광고

병든 사람을 문안하는 것은 나(부처님)를
문안하는 것이요,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은 나를 간호하는 사람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증일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강주 스님 도강 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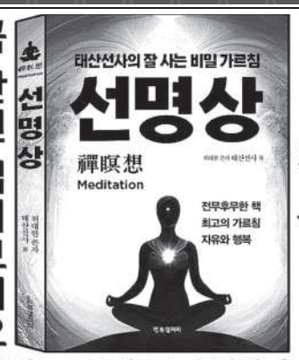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010-2168-2800

(사찰행사)범음범패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생전예수재

연암당 덕평스님
010-6219-4757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천하제일 적중률!

손으로 짚어 안되는 것이 없는
구단구궁법교실
상 표 등 록 : 40-0863341
서비스표등록 : 41-0213393
저 작 권 등 록 : C-2011-003967
특허 2일 완성 학생모집

법화 종헌 정흥교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 불교연합회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불교 용품 경매 알림

품목 : 불상, 불경, 불기
불화용품, 불교관련 용품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1시부터
장소 : 전북 남원시 사매면 세동길 8

오리정휴게소 내 010-3717-4032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4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⑭ 정각원 중단(신중단) 2

신중단, 방편 아닌 깨달음이어야

앞서 우리는 동국대학교의 주법당인 정각원에 도착하여 영가단을 둘러본 후 신중단을 바라보았다. 정각원의 신중단은 '통일찰해도'로,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신앙이 습합돼 있음을 살펴보았고, '신중'이란 매개를 통해 불교가 외도들의 신을 받아들인 것은 특이한 일임을 지적했다. 또 외도들의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교의 구원과 관련된다면 수용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되며, 이를 천태지의(538~597)의 경문 이해에 맞춰 살펴보았다.

혹여 불교적 소양이 높은 독자분들은 그런 것이 다 방편(方便)인 줄도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몇 회차 전 필자가 주로 보는 경전이 바로 방편의 경전인 〈법화경〉임도 밝혔고, 연재 초반에 방편을 주제로 잡은 내용도 있었다. 방편의 의미에 대해 필자도 나름의 사색이 있다는 말이다. 즉 필자가 생각하는 방편이야말로,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아시는 유불여불(唯佛與佛)의 일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애에서 거짓말할 권리라는 잘못된 생각에 관해서〉란 독특한 제목의 책에서 설사 인류 전체를 위해서라도 거짓말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하얀 거짓말은 없다는 것이다. 칸트의 윤리학은 대부분 상황에서 옳은 길을 제시해 준다고 평가받는다. 십여 년 전쯤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크게 유행했을 때, 그 책에서 최종적인 정의와 윤리를 칸트에게서 찾았던 것이 기억난다. 그런데 이 칸트의 윤리, '하얀 거짓말은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 탈것을 말했는데 나중에 훌륭한 큰 탈것만 준다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가?" 사리불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사옵니다. 그 사람은 절묘한 방편으로 아이들을 불타고 있는 집에서 나오게 하여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옵니다. 아이들이 모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장난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화경〉 '제3 비유품'

〈법화경〉 '비유품'에는 그 유명한 삼계화택의 비유가 등장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부자가 잠시 밖을 나온 사이 집에 불이나 버렸다. 부자는 깜짝 놀라 집안의 식솔에게 어서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자식들만은 놀이에 빠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현명한 부자는 꾀를 내어 자식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어 하던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불타는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했다. 이에 귀가 솔깃해진 자식들이 나와서 각자 원하는 수레를 달라고 하자 모두에게 '큰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주었고 이에 양이나 사슴 따위에도 만족할 자식들이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받게 돼 모두 행복해했다는 이야기이다.



〈법화경〉 '비유품'의 삼계화택을 묘사한 돈황 막고굴 변상도.

사진 출처=돈황석굴감상총서(敦煌石窟鑒賞叢書) 제9분책, 제98굴

모든 중생은 이미 붓다의 지혜 갖춰
방편은 붓다만 아는 '유불여불' 경계
영가단 · 신중단 다른 것 방편 안 돼

〈화엄경〉 '여래성기품'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뒤 중생들을 친히 살펴보시니, 모두에게 붓다의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상하고 이상하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 불교에서 붓다는 '일체지자', 즉, 전지자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이상하고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중생들이 윤회 속에서 벌이는 기행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앞서 불난 집에서 놀이에 정신이 팔려 빨리 나오라는 말을 듣지도 않는 자식들이 바로 중생이다. 붓다인 부자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는가. 자식이라고 낳았더니 불난 지도 모르고 노는 아이들이라니. 그래서 고안한 것이 하얀 거짓말이다. 그들에게 양과 사슴, 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마지막에 하얀 소가 끄는 수레를 주는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 바로 이 '이상하고 이상한' 관계가 붓다와 중생의 관계다. 필자는 서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관계를 '절대적 타자'의 관계로 본다.

다시 돌아와 붓다께서는 윤회 속에서 기행을 일삼는 중생들을 위해 양과 사슴이 끄는 수레, 교리적으로는 소승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화엄경〉의 말씀처럼 모든 중생에게는 이미 붓다의 지혜가 갖춰져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가 붓다의 지혜인데, 성문의 지혜를 성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실 양과 사슴이 끄는 수레 따위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다. 그저 윤회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중생들을 위한 붓다의 거짓말이었을 뿐이다. 이것이 방편이다.

그런데 이는 칸트에게 비윤리적인 일일 뿐이다. 중생들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으로 거짓말을 한 붓다야말로 칸트가 말한 비난 유형에 딱 들어맞는 인물일 것이다. 칸트의 윤리학에서 붓다의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시 말하지만, 방편은 '유불여불'의 경계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방편이라 칭하며 행하는 많은 거짓말과 기만은 대부분, 아니 전부 옳지 않은 일이다. 방편은 붓다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방편도 없이 어떻게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구제할 것인가? 도겐 선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정한 가르침을 설하기 이전의 임시방편 가르침은 전혀 이득이 없다. 최후에 설하신 진실한 가르침(〈법화경〉)만이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문제 삼지 말고, 언제나 진실로써 대답해야 한다."

– 〈정법안장수문기〉

우리로서는 붓다께서 말씀하신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어설프게 붓다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상불경보살처럼 매를 맞더라도 오로지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대들은 모두 붓다가 될 것이다'라고만 말해야 한다.

그렇기에 신중단을 방편이라 하고, 여기서 명확한 깨달음을 구할 수 없다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 신중단 그 자체가 방편이 아니라 깨달음이어야 한다. 영가단을 계단 삼고, 신중단을 방편 삼아 불단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영가단이 그 자체가 깨달음이어야 하고, 신중단 그 자체가 깨달음이어야 한다. 그 자체가 다른 것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들의 이름을 네모 속에 가두어 놓은 한자(漢字) 한 글자마다 깨달음을 개현(開顯)한 천태지의의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동국대 박사〉

지장보살의 내세 원력으로 십악업 전환하는 불륜(佛輪)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㉘ 제9·10륜(輪)의 주요 내용

지금까지 〈지장십륜경〉 이야기는 제2권에서부터 시작하는 부처님의 열 가지 힘, 즉 '십륜품(十輪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왕의 치세(治世)에 따른 십륜과 비교하며, 지장보살을 내세워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십륜[十佛輪]으로 중생들의 '십악업륜'을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본래 서원에 따라 파계나 무계를 막론하고 비구를 욕해(辱害)하지 말 것과 국왕과 대신 등이 불법을 보호해 국토의 안온함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장십륜경〉의 '제9 왕륜(王輪)'에서는 "대왕은 그 나라 유정들의 종성(種姓)과 기예와 사업, 또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인과의 우열과 차별을 관찰하고 어떤 집에서 태어났으며 … 배움의 유무, 부귀와 빈천, 얼굴이 단정한지 누추한지 등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대로 다 안다. 또 목숨을 마치되, 제 업이 다하지 않았는데도 죽거나 왕법을 어겨 형(刑)을 받아 죽고 … 선업이나 악업을 짓다 죽은 것 등을 다 알며, 선행을 한 유정은 좋은 세계에 가고 악한 유정은 나쁜 세계에 갈 것을 생각하는 대로 다 안다. 그리하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부지런히 몸, 말, 뜻의 선행을 닦고, 갖가지 방편을 베풀어 보시와 조복, 선정을 수행해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대왕은 이렇게 생각하여 … 살생, 도둑질, 음행을 떠나고 거짓말, 추악한 말, 이간질과 더러운 말 등과 탐욕, 분노, 삿된 소견 등을 모두 떠나서 십종공덕의 훌륭한 이익을 얻었느니라. 그것은 ①큰 명예와 ②많은 재보를 지니고 ③오묘한 색상과 ④많은 권속을 갖추며 ⑤병과 고민이 적고 ⑥벗과 권속이 불법을 많이 들으며 ⑦바른 행이 있는 이를 친근 공양하며 ⑧아름다운 명성이 널리 퍼지고 ⑨천신이 항상 호위하며 ⑩목숨이 다해 좋은 세계에 나서 안락함이라.

지장보살이여, 저 대왕은 이러한 제9륜을 성취하고 이로써 나라의 안락을 증진하며, 나쁜 벗을 항복 받아 그 몸을 잘 수호하고 수명을 더욱 길게 하느니라."

제9불륜(佛輪): "지장보살이여, 여래도 이처럼 저 모든 유정들의 생사에 관한 일을 여실히 잘 안다. 몸과 말과 뜻의 악행을 지어 성현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와 그 업인(業因)을 모두 갖추면,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옥, 아귀, 축생에 나는 것을 여실하게 아느니라. 그리하여 저 중생들에 대해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세 가지 신변(神變)을 나타내어 그들이 불법의 가르침으로 돌아와 믿음을 이루게 하느니라. 세 가지 신변이란 첫째는 신통의 신변, 둘째는 설법의 신변, 셋째는 교계(教誡)의 신변이다. 이로써 유정을 격려하고 세간과 출세간의 믿음을 이루게 하며 유정을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나는 이러한 제9불륜을 성취해 무량한 유정들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나는 대선(大仙)의 높은 자리에서 불륜을 굴려 … 외도들의 삿된 주장을 꺾는다'고 말하며 대중 가운데에서 바르게 사자후하느니라."

〈지장십륜경〉 제2권의 마지막 부분인 제10왕륜(王輪)에서도 "대왕은 모든 유정들을 보살피고, 일체 천신에게 꽃과 음악, 그 밖의 공양거리를 올린다. 그때 일체 천신과 용왕 … 마후라가왕은 의논해 그를 '전륜왕이 되게 해 사주(四洲)를 통솔하게 하고, 중생들의 병을 없애서 안락하게 하자'는 원력을 세워, 그로 하여금 사주를 자재하게 통솔하게 한다. 그들의 천명(千名)은 용맹·단정하고 원수를 모두 무찌르며, 왕의 대지를 지나 바다 끝까지 벌주는 일이 다 없어지고 칼 따위를 쓰지 않아도 모두가 바른 법과 안락을 받는다."

"지장보살이여, 저 대왕은 이러한 제10왕륜을 성취하고, 사대주와 팔만사천의 소주(小州)에 이르는 일체 유정을 편히 살게 하며, 십종의 선업으로 그 몸을 잘 수호하고 수명을 늘린다."

제10불륜(佛輪): "지장보살이여, 여래도 과거 보살 지위에 있을 때, 자기와 남에게 있는 무량한 번뇌의 병을 알고서 선정의 향수로 몸을 씻고 사제법(四諦法, 고苦제, 집集제, 멸滅제, 도道제)과 대자대비로 머리를 감고 부끄러움의 옷을 입었다. … 그때 나는 복과 슬기의 힘으로 용맹정진해 네 가지 거룩한 진리[四諦法]를 여실히 알았으며, 위없는 정등각을 증득하였느니라."

"… 이 십불륜(十佛輪)의 말씀을 들은 대중 가운데, 팔십사백천 나유타의 보살마하살은 무생법인을 얻었고, 무량한 보살마하살은 갖가지 다라니와 삼마지(三摩地)와 인가(認可)를 얻었으며, 무량한 유정들은 위없는 정등각에 대한 마음을 내어 물러나지 않게 되었고, 또 무량한 유정들은 모두 과증(果證)을 얻었다.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술이 차십니까? 기침, 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독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⑭ 대서_제주길을 걷다(1)

▶한줄 요약
입춘을 앞둔 여름의 마지막 절기인 대서(大暑)는 심한 더위인 혹서와 일 년 중 땅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는 토용의 시간을 의미한다.



사라진 뭇 생명, 푸른 파도 소리와 돌아오길

우주 만물이 상생하고 순환하는 과정을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다섯 가지 기운으로 설명한 음양오행 사상. 옛사람들은 뭇 생명의 본질을 자연의 다섯 가지 성질을 통해 이해하고, 계절의 흐름과 그사이의 미묘한 변화를 읽어 냈다.

그중에서도 일 년 중 땅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는 때, 그것이 바로 토용의 시간이다.

일 년에 단 네 번. 입춘·입하·입추·입동이 시작되기 전 18일간을 '토왕용사(土旺用事)' 혹은 '토용'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겨울은 혹한(酷寒), 여름은 혹서(酷暑)의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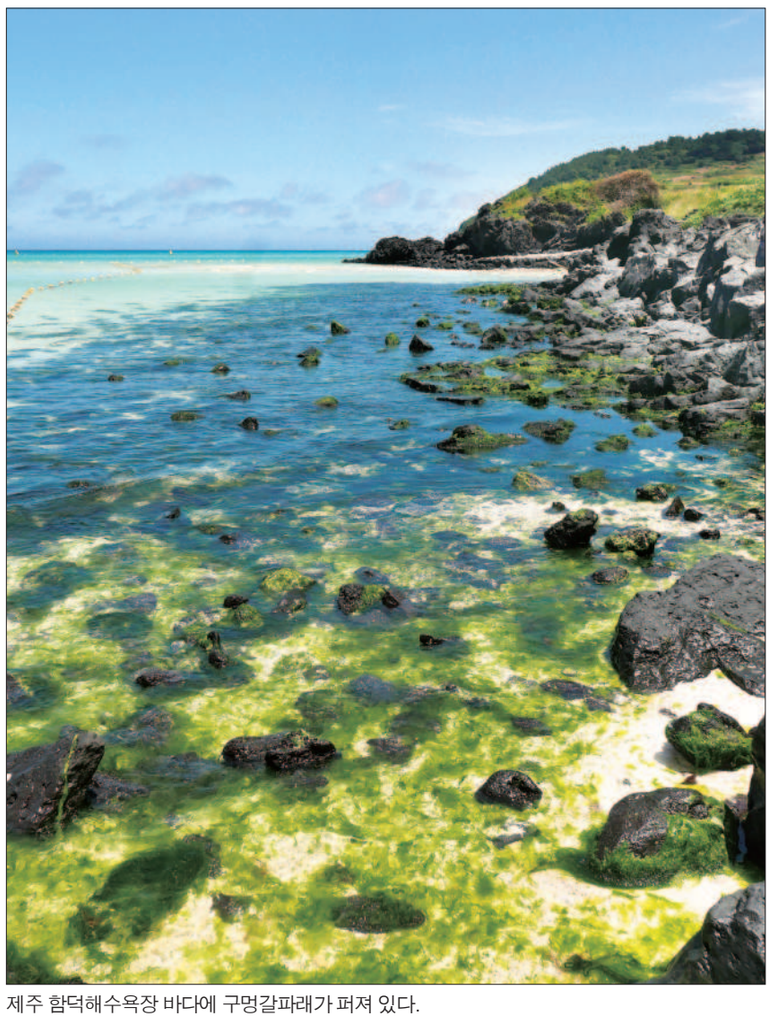
입춘을 앞둔 여름의 마지막 절기인 대서(大暑)는 바로 그 혹서와 토용의 시간을 의미한다.

'염소 뿔도 녹인다'는 대서는 삼복의 더위를 겪으며, 장마의 영향까지 받는 때. 그런 이유로 옛사람들은 작은 더위(소서)와 큰 더위(대서), 또 초·중·말복을 나누어 이 계절의 이정표를 세웠다. 극한에 달하는 여름의 한 뼘마다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도록. 또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모두 함께 이 혹독한 계절을 잘 넘길 수 있길 바라며.

이즈음 농촌은 김매기, 잡초 베기, 퇴비 준비 등으로 바쁜 시절. 하지만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토왕용사'는 토용의 첫째 되는 날에 흙일을 금한다는 뜻을 함께 가진다. 땅의 기운이 극에 이르렀을 때 흙일을 하면 도리어 해롭다는 것. 그것은 아마도 긴 시간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해진 오랜 지혜이자, 경고일 것이다.

하지만 흙이 아닌 바다에서라면 어떨까. 타오르듯 뜨거운 땅이 아니라 넘실대는 망망대해라면. 마냥 내어 주는 대지처럼, 무한히 베풀어 주는 푸른 바다를 '바당밭(바다 밭)'이라 부르는 곳. 불에서 태어나 검은 흙을 가진 탐라의 땅, 저 제주의 바다처럼.



제주 함덕해수욕장 바다에 구멍갈파래가 퍼져 있다.



돌담 너머로 본 제석사.



제석사 제석당의 석불 3기.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제주 밥상.

'듬북' 거름이 밥 먹인다

완연한 여름, 밭갈이를 끝낸 소들은 한라산으로 올라 여름을 나지만 사람의 일은 끝이 없다. 과거 7~8월 제주 바다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바로 거름을 위한 해초를 구해 올리는 일이다.

모든 경지 면적 중에서 논은 0.5%에 지나지 않는 화산섬. 빗물은 죄다 지반으로 스며들어 개간조차 불가능한 이곳에선 자연히 밭농사와 보리, 조, 메밀에 의지할 수밖에. 육지에서는 잡곡으로 취급받는 작물이 제주에서는 주곡의 위치를 차지한 이유다.

하지만 척박한 땅은 그조차 쉽게 내어 주지 않는 법. 거름을 하지 않으면 낟알은 달리지 않았다. 지금이야 언제든 손쉽게 비료를 구하지만, 과거 이 고립무원의 섬에서는 소똥 한 덩이도 쉬이 구하기 어려운 처지.

다시 바다로 눈 돌린 이들에게 바다는 제철을 맞은 풍성한 해초를 내어 주었고, 이는 돈보다 더 귀한 거름 살림으로 되살아났다. 저렴한 화학 비료가 제주를 점령하기 전까지, 푸른 바다풀은 이 섬의 뭇 생명을 먹여 살린 1등 공신이었다.

과거 대서 무렵 제주의 풍경은 너 나 할 것 없이 거름용 해초를 위해 바다로 뛰어들던 모습이다. 어부들은 모자반의 일종인 노랑쟁이(괭생이모자반), 고지기, 듬북(뜸부기) 등이 바다에 밀려오면 그물도 내던진 채 건져내곤 했다.

수시로 물에 들어가 해초를 구하고, 다시 거름을 만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터라, 땅이 없는 소작민들은 지주 밭에 듬북 거름을 대신해 주는 조건으로 땅을 부칠 수도 있었다고.

테왁에 몸을 기대어, 장낫으로 듬북을 베어 오면 1m도 넘는 망사리 무게에 휘청대는 몸. 그렇게 얻은 수확물은 다시 긴 시간 외양간의 소 배설물과 삭힌 쉐걸름(소 거름), 돗통시(돼지우리변소)에서 섞인 돗걸름(돼지 거름), 주식용 밭에 뿌릴 듬북 거름 등으로 재생되어 땅으로 돌아갔다.

척박한 땅을 일구기 위해 더 거친 바다로 뛰어들어야 했던 해민(海民)의 땅.

"새벽에 듬북 한 짐 해 와야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제주의 옛말은 듬북이 곧 식량이요, 생명이었음을 잘 보여 준다. 바다와 땅, 사람이 손잡고 함께 살아가던 시절, 그날의 제주 바다는 지금과 분명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 풀이 사라진 곳에

1929년 5월 27일 새벽 2시. 독일인 탐험가 발터 스퇴츠너는 산지항을 통해 제주에 입도했다. 그는 이미 20년 전 조선을 찾아 그 아름다움을 익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변화와 일본의 강압적 태도에 도망치듯 제주로 향한 것이다.

2025년 여름, 드레스덴 박물관에 소장됐다가 근 백 년 만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돌아온 그의 기록물들은 오래전 그날의 제주를 증명한다.

'이곳에는 가축에서 나오지 않은 거름 더미들이 있다. 매번 폭풍이 지나면 해변에 거대한 양의 해조류가 쌓인다. 이 해조류를 더미로 쌓고, 그 위에 짚으로 그늘을 만들어 둔다. 이것을 거름으로 사용하면 축산 거름만큼이나 농작물에 효과적이다' 〈1929년 한국 전역을 가로지르며(Kreuz und Quer durch ganz Korea 1929)〉

망종 무렵부터 대서까지, 제주에서 두 달간의 여름을 보낸 스퇴츠너는 이곳에서 제주만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생업 기술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일제의 야욕, 그로 인한 제주의 무분별한 산업화, 그리고 나날이 퍼져가는 화학성 비료와 환경의 파괴를 보며 그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섞인 글로 제주의 미래를 걱정했다.

'결국에는 이 회복 불가능한 아름다움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면 결국 이 섬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산, 한라산만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그의 예언 같은 우려는 결국 맞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제 제주 바다에서 미역, 파래, 감태, 톳과 같은 해조류는 침묵 속에 소멸한 지 오래다. 노랑쟁이와 듬북을 찾는 사람들도 이제는 없다. 바다 숲이 사라지며 그 안에 더불어 살던 물고기, 구쟁기(소라), 오분자기(떡조개)도 자취를 감췄다. 토용의 기운마저 뛰어넘는 저 들끓는 바다에서 그들이 설 자리는 없다. 다만 갈 곳 잃은 쓰레기와 기이하게 커져 버린 낯선 바다풀만이 그 빈 곳을 끝없이 잠식해 가는 것이다.

인드라망의 세상

제주시 이도2동, 과거 이곳은 '독짓골'이라는 이름으로 맑은 하천이 흐르고 푸른 숲과 기암절벽이 자리했다는 마을. 하지만 맑은 물이 흐르던 냇가는 아스팔트로 뒤덮이고, 울창했던 산세는 크고 작은 빌딩과 공동 주택으로 변한 지 오래다.

그러나 그 안의 작은 섬처럼 푸르름을 지키고 있는 절집 하나. 바로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의 말사인 제석사다.

제석사는 제석 신앙을 뿌리로 한 도량으로, 지금도 한라산에서부터 흘러내린다는 석간수가 '제석샘'이 되어 이곳을 지킨다. 그리고 저 고적한 대웅전 곁, 제석당에는 순백색의 소조여래좌상과 오래전 이곳의 시작이었던 석불 3기가 머무르는 것이다.

마치 돌하르방처럼 투박하고 푸근한 제석사의 석불. 지그시 두 눈을 감은 표정은 이제는 사라진 옛 제주의 모습처럼 아련하다.

불법을 수호하고 뭇 중생의 수호신이 되어 주는 제석천. 본디 인드라(Indra)라는 이름을 지닌 그의 궁전에는 신비의 그물 '인드라망'이 펼쳐져 있다고 한다. 그 그물에는 매듭마다 구슬이 있어, 하나의 구슬이 또 다른 구슬을 비추며 무한히 서로를 투영하는 것이다. 각각의 존재로 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진 세계.

이제는 너무 변해버린 땅과 바다, 그 너머로 숱한 인간의 욕망이 교차한다. 하지만 그 너머에 푸른 파도 소리와 함께 되돌아올 또 다른 마음이 있다고,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다.

타오르는 토용의 시간도, 이제는 잃어버린 바다도, 이 절기도 그렇게 함께 손을 잡는다.

[참고]
어느 식솔들의 삶과 '듬북'(고광민〈제주 해조류와 생활사〉), 헤드라인 제주, 기후위기 최전선, 제주 바다 인터뷰(오마이뉴스)

〈작가〉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백공선원
• 창건주 : 이영식
• 주 소 : 충남 공주 계룡 하대리 725-3

위 사찰은 창건주 선법에 따라
귀 종단의 종지종품이 맞지않아
이미 2021년 탈종을 결의한 바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불령사
• 주 지 : 법정 속명 신영숙
• 승 번 : 7985
• 주 소 :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구계로 296-83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종단 공고 알림' MOU 제안

현대불교신문사는
귀 종단과 2025년 '종단 공고 알림'
업무협약을 통해 종단 활동을 홍보하는 데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의 이취임, 종도 모집, 종단 행사 공고 등
각종 공고를 많은 곳에 전하여 종단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탈종공고 접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물질세계와 내면세계가 둘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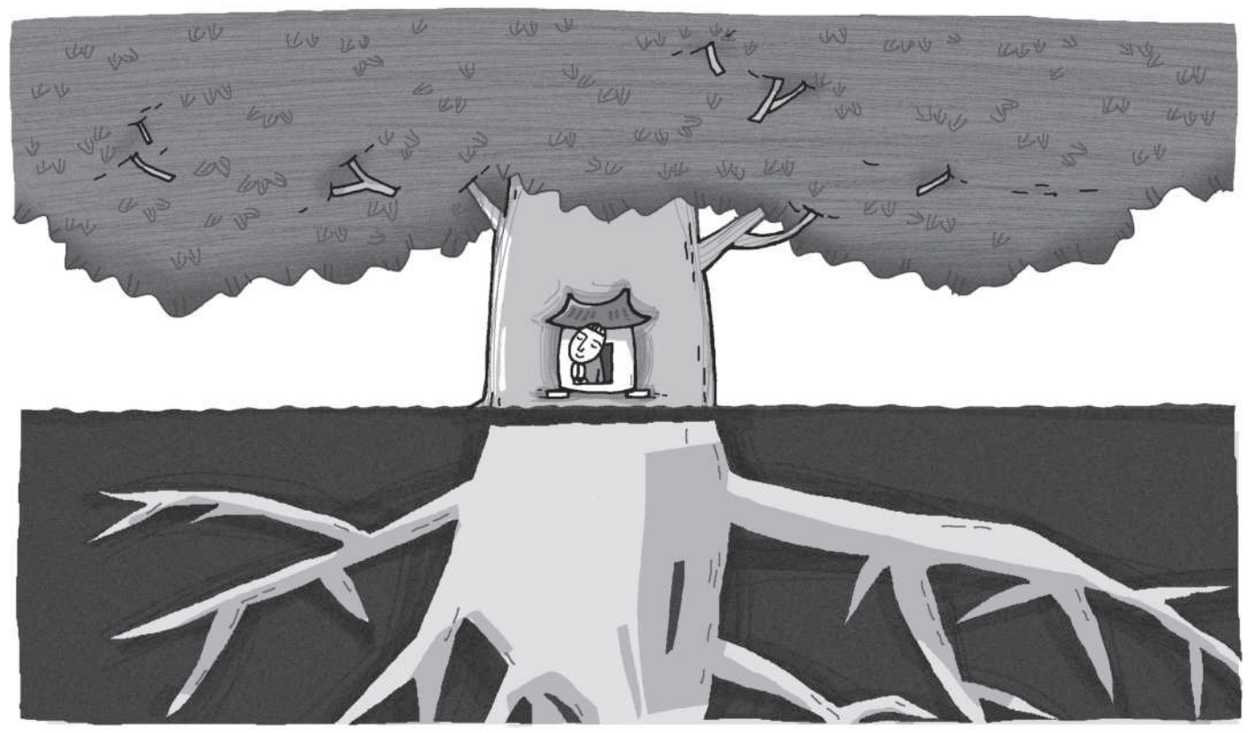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산 법회를 위해서 큰스님께서 아주 극치의 설법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교연합회의 총무부장 스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첫째, 불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잘 아셔야 됩니다. 불(佛)이라는 것은 곤충,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근본을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로 전달을 하지만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돌아갑니다. 무전통신 또는 통신으로 전달을 하고 돌아가고요. 이렇게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찰나의 이 진리를 볼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에 전달과 전달을 하는 것을 교(敎)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란 그렇게 미묘하고 광대하고 어느 곳에도 걸림이 없는 겁니다. 어느 종교라도 불교 안에 들어 있지 불교 바깥에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 깎고 스님 노릇 하는 사람들만 불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일체 만물만생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바로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도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등 동물로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나가 다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인해서 바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각자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수화풍으로 뭉쳐져서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써 모두…, 지금 전력도 물에서 얻죠? 지수화풍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자기를 안다면 천차만별의 모든 용도에 따라서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마음의 근본과 마음을 내는 거와 육체가 움죽거리는 삼합이 하나로써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써 육체를 다스리면서 또 마음은 마음을 내게 할 수 있는 근본과 더불어 삼합이 한데 합쳐서 찰나에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그걸 주인공이라고 이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도 이름이요, 자아도 이름이요, 불성도 이름이요, 주인공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아닌 이름이라면 정말 그 길을 손살피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기 이전 그 자체가 바로 나의 마음의 근본이라고 할까요? 한마음의 근본! 영혼의 근본이라고도 하죠. 즉 뿌리 말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기 뿌리. 나무가 뿌리로 인해서 모든 영양을 흡수해서 푸르르게 살고 있듯이 여러분도 영혼의 근본 뿌리로부터 영양을 섭취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기 이전 그 자체, 영혼의 근본이 자기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차원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겠죠. 차원에 따라서 모습을 들고 나오게끔 형성시키는 것도 자기의 그릇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의 자기가 영혼의 근본으로서 자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지금은 정자 난자라고 그러죠? 자기 그릇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같은 그릇의 한 부부, 즉 인간의 부부라든가 개, 짐승의 부부라든가 곤충의 부부라든가 어떠한 부부에게 들어가서 자기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형성시켜서 나오는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붙어 돌아가는 게 있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영혼은 근본이 아닙니다. 영혼은 바로 업식에 의해서 또 그림자처럼 붙어서 형성이 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올 때 벌써 몸에 결부가 돼서 나오죠. 이게 생각하면 아주 복잡합니다만 복잡하더라도 잘 들어 보세요. 그렇지만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탄생을 했으니 이 몸뚱이는 그 업식의 집합소란 말입니다.

몸뚱이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아주 어리석죠. 몸뚱이는 마음의 심부름꾼이자 관리인이자 바로 자기 자생 중생들이 있는 집합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주어지는 거니까 누구 탓을 할 것 없고 증오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 업식 속에서 뭐든 자기가 한 대로, 즉 말하자면 세균성이나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유전성 이 모두가 합쳐져서 차례차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죠. 인간에게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인간의 컴퓨터는 오신통으로 인해서 자동적인 컴퓨터가 됩니다. 오신통이란 자기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고 그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인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입력이 돼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업식이란 말입니다. 업식에 의해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만 과거가 아니라 어저께도 과거요, 아까도 과거요, 한 시간 전도 과거요, 일 초 전도 과거란 말입니다.

몸속에 자생 중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생 중생들과 더불어 한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일체제불의 마음 자체가 바로 내 한마음 속에서 들고 난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위를 받들고, 아래로는 자기 자생 중생들을 다스려서 제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스려서 제도를 안 하면 항상 번뇌 망상과 모든 것에 끄달리게 되니까 제도를 해서 그 끄달리는 굴레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바로 상대가 있는 거고 세상이 벌어졌고 우주가 있는 거고, 우리가 모두 불교를 숭상하게도 됐다 이 소립니다.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부터 알아야 하고, 먼저 나부터 믿어야 하고, 먼저 나부터 발견해서 자기의, 즉 이전 부(父)와 현재 자(子)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만이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관습이나 업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너희 마음대로 쓰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렇게 하질 못해요. 아니, 내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 해요.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면 중생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면 부처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처라는 이름은 어떤 개별적인 하나를 세워 놓고 부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일체제불 속에 일체 중생이 들어 있고 일체 중생 속에 일체제불이 들어 있다 이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한마음이라고 일컫는 것이고 그 한마음조차 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부모자식지간이나 형제지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사 일체 만법을 움죽거리는 것을 어떤 놈이 하고 있나

☞ 19면에서 계속

간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식이 잘못했다, 자식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말로다가 몸을 붙들려고 한다면 절대로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어야만 절대적으로 둘이 아니게 되고, 둘이 아닌 불이 들어올 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같이 둘이 아니게 착하게 됨으로써 바로 물리가 터지고 마음의 발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식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어야 육체가 따라오지, 마음으로 붙들지 않고 말로다가 이놈 저놈 하고서 욕을 아무리 해 봤던들 더욱더 차게만 느껴지고 더욱더 멀어만지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위없는 가르침이고 진실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여여하게 깨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신 밥 먹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네들이 하는 염불을 들어 보면 '계향, 정향, 혜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하죠? 이 다섯 가지를 잘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아주 그지없이 깨칠 것입니다.

첫째, 계향이니 말입니다, 계향이라고 해서 계를, 280계나 350계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는데 왜 꼭 그렇게만 지켜야 합니까. 만약에 계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단 십계도 못 지킵니다. 단 오계도 지키기 어렵죠. 그런데 첫째, 계향이라고 했으니까 일체를 내 탓으로 돌리고 누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처음부터 기초가 잘되어야 집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부처라는 뜻도 되죠. 그러나 이게 처음부터 직선으로 들어가야지 만약에 잘 지키는 것만 계라고 가르친다면 이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계향이니, 내 탓으로 돌리고 또는 부처님께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은사 스님에게 누가 되게 해서도 아니 되고, 자기에게 누가 되게 해서도 절대 안 된다 이 소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자기 탓으로 돌린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화목을 가져오죠, 미움이 없어지죠, 증오가 없어지죠. 그렇게 하니까 사형 사제들이 모두 화목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한 형제들 간에, 부모자식지간에도 화목을 가져온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향 아닌 계향을 지킨다면, 돌아가는 용도에 따라서 일체 모든 것을 '너만이,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에다가 놓았을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향이니, 이것은 물질세계와 내면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기에 물질세계고 나를 다스리는 자가 있기에 바로 내면세계다 이겁니다. 내면세계와 물질세계가 둘이 아닌 까닭에 내가 있으니까 내 내면에 선을 세워 놓고, 즉 주인공을 세워 놓으란 말입니다. 마음을 내는 것과 몸이 움죽거리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내게 하는 놈, 이 삼위일체가 같이 합동으로 돼서 찰나에 돌아가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자체가 자기 껍데기다 아니다 할 것도 없이 주인공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너만이 이끌어 갈 수가 있고, 너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병고도 네 몸이니까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가는 것도 너뿐이다.' 어떠한 상대가 나를 때리고 찢고 찍고 정신을 뺏어 먹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둘 아닌 까닭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거는 너밖에 없다.' 하고 놔 버린다면, 바로 그것이 정향이자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패기를 잃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그렇게 귀하고도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정향' 할 때에 우리가 문을 찾아서 다니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광대합니다. 지구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고 우주 밖에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건 문을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고, 벽도 봇장도 우주도 대기권도, 땅속도 물속도 물론 여지없이 통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선을 세워 놓고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할 때 그 말이 한데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바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투는 까닭입니다.

또 '혜향'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둘로 보지 않는, 바로 지켜보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밝게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혜향입니다. 둘로 보지 않는 마음, 관찰하는 마음, 실험하는 마음, 체험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혜향입니다. 매사 일체 만법을 움죽거리는 것을 어떤 놈이 하고 있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말입니다. 잘한다는 데서 끄달리고 못한다는 데서 끄달리고 회개다 해서 끄달리고, 이거는 뭐 끄달리는 데 아주 난장판이 돼 있어요.

'혜향' 했으니 다음에 해탈향이 있죠. 만물만생의 무명 굴레에서 아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벗어나서 밝은 마음으로 여여하게 다스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해탈향입니다. 외부의 모든 중생들이나 내면의 자생 중생들이 바로 무명에서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굴레에서 벗어나서 밝게 다스리고 여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향에서부터 잘해 나가신다면 계향은 정향에 하나가 되고, 혜향이 잘되면 정향에 또 하나가 되고, 정향과 해탈향, 해탈지견향도 모두가, 다섯 가지가 모두 하나의 정향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해탈지견향, 그것은 우주 일체 만물만생을 다 밝게 보고 보살피며 바로 걸림 없이 여여하고 구족하게 다스리면서, 밝게 조건 없는 자비로써 많은 중생들을, 모든 일체 만물만생들을 응신으로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죽은 중생이나 산 중생이나, 보이지 않는 중생이나 보이는 중생이나, 말이 있는 중생이나 말이 없는 중생이나 모든 중생들에게 조건 없는 자비로써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투는 까닭입니다. 천백억이다 함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을 잘 받아들이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내 몸 안의 자생 중생들을 다스려서 한 마음에 나라는 것이 없다면…, 즉 말하자면 여러분의 자생 중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생명체들이 그렇게 많은데, 의식이 그렇게 많은데 한 부분 부분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작용을 하는데, 어떤 거 작용을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몸뚱이 하나가 여러분인 줄 알지만 여러분 몸뚱이 속에 정말 천백억이라는, 아니 천차만별의 생명과 모습과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의식 하나하나가 바로 나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몸 안에 들어 있는 거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한테서 자기가,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는 거와 같습니다.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죠.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는 것뿐이죠. 그래서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업식이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돌려 놓는다면, 앞서 입력됐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 것을 나오는 데다 되입력을 한다면 과거에 입력됐던 게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스려서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되돌려 놓으란 말입니다. 모든 걸 그놈이 하는 거니까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죽든 살든 그놈이 하는 겁니다. 죽어서 다시 형성을 시켜도 그놈이 하는 거, 또 죽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껍데길 벗겨 버리는 것도 그놈이 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마땅히 '내가 내가 아니구나. 나와 더불어 같이 있는 부처는 중생 속에 들어 있는 것이요, 중생 속에는 부처가 들어 있다. 모두가, 시발점도 종점도 둘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셔야죠. 타는 것도 내리는 것도, 시발점도 종점도 따로 없습니다. 그와 같이 내 정신계와 물질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은 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했다고 할 수 없으니,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 모두가 동심으로서 모든 걸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동심으로서 동참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몸뚱이 속의 자생 중생이 바로 자성 부처를 상봉해서 잘 안다면 이 세상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근본이 내 마음의 근본이요, 이 세상 사바세계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가설이 됐다 이 소립니다. 가설이 돼서 돌아가니까 남이 모른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우주간 법계에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일체제불의 마음이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요만큼이나 에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만큼이나 어찌 거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끼면 빼고 뺐으면 끼고 이러지 마시고 좀 지혜롭게 물리가 터지면 정말로 남을 위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지혜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러한 것도 지혜롭게 써야 된다 이겁니다. 싸움을 붙이거나 남을 나쁘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람 사는 바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해 나가는 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여보, 당신 시장하지 않았소?"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 주고, 그리고 주인공에다가 '저 사람과 나와 둘이 아닌데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맡긴다면 화목을 가져오고 그 마음도 밝아져서 둘이 아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아주 자비로써 가정이 화목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모든 걸 다스려서 '주인공, 너만이 잘 이끌어줄 수 있어.'하고 되돌려 놓으란 말입니다. 모든 걸 그놈이 하는 거니까요. 잘하든 못하든, 울든 웃든, 죽든 살든 그놈이 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7월 24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건강식품 대특가! 단 100세트 한정 특별할인판매

기간 : 오늘부터 ~ 2025년 7월 30일까지

세계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모방불가능! 세계 최초 기술력!
관절·연골·칼슘을 한 번에 챙기세요!

① 에이펙셀 관절연골튼튼
✔ 세계최초 기술력! 관절+연골 집중 케어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증정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하루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관절 지키기!



② 한국칼슘왕 (나노칼슘)
✔ 세계최초 나노입자 칼슘으로 흡수력 UP!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2개월분)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칼슘! 뼈부터 챙기세요!



③ 본추관절정 2+2 행사
✔ 관절과 연골에 딱 맞는 4개월 구성!
1세트(2통)+사은품 2통 → 총 4통 (4개월분)
정가 396,000원 → 특판가 15만원
→ 무릎, 어깨, 허리까지! 50% 할인 찬스!



■ 지금 전화주세요! 선착순 100분 한정판매!
■ 수량소진 시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 택배무료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는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에서 주문시 가능)
■ 상담 : 1688-9099 ■ 신한은행100-036-429749(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⑭ 우리는 왜 부정적인 것에 집착할까?

끊임없이 파도치는 부정적인 생각(2)

저녁 수행(잠들기 전, 2시간 좌선)을 하고 잔 날에는 새벽에 가뿐하게 저절로 눈이 떠진다. 하지만 저녁 수행을 하지 않고 잔 날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이는 잠잘 때 '의식'은 쉬지만, '무의식'은 쉬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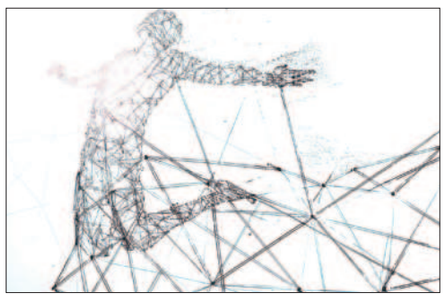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저녁 수행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이 더 이상 더렵혀지지 않고 잠시 청정함을 유지해 그것이 아침에 의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반영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저녁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대낮의 소용돌이가 밤새도록 연결돼 오염된 무의식이 계속 파도를 친 것이다. 이 파도치는 전개를 오온(색-수-상-행-식)이라고 한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6근과 6경의 만남이 있자마자 바로) 부정적인 기억이 의식의 표면 위로 떠오르고 고통 받는다. 수행의 유무에 따라 마음의 질이 다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단히 선정력을 키워야 함을 새삼 느낀다. 그 이유는 마음이 안정돼야 대상을 관찰하는 통찰지도 힘이 붙기 때문이다. 내 몸이 빈 병이라면 그 속에 오염된 물의 파도를 계속 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청정한 물로 바꿀 것인지의 싸움이다. 청정한 에너지를 계속 쏟아붓지 않는 한, 이미 더러워진 에너지는 더욱 기승을 부릴 뿐이다.

'집착'은 '화살에 맞는 것', 미친 증세를 낸다

지난 연재(끊임없이 파도치는 부정적인 생각, ⑬ 어떻게 대응하나?)에서 그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서의 '촉과 느낌', 그리고 '느낌 관찰(수념처)'의 중요성, 효과 있는 대응책 몇 가지를 다루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부정적인 기억에 집착할까?

우리는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에 집착한다. 내 의견에 반하는 남의 말과 행동이 나에 대한 공격이나 무시 등으로 받아들여졌을 경우, 이는 안 좋은 기억으로 저장된다. 즉, '나'라는 존재를 위협한 정황으로 강렬히 입력된다. 객관적 관찰자 시점을 유지



'알아차림의 힘'으로 생각의 그물에서 벗어나다. ©강소연

한다면, 안 좋은 기억보다는 사실 좋은 기억들이 훨씬 많다. 그러나 나의 주관은 안 좋은 기억 위주로만 집요하게 집착한다.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두려움을 느껴 긴장하는 것은 적이 나타났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경보이다. 기억이란 이미 지나간 현재에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조그마한 '불편한 느낌'의 스침에도 그 기억을 떠올리고 반응하며 또 떠올리고 반응하고를 무한 반복한다.[6근과 6경이 만나자마자 '촉(觸)'이 발생하고 → 여기에 '좋다 또는 싫다'라는 '느낌의 분별과 집착'으로 반응하고 → '싫은 느낌'으로 판단되면 '싫은 기억'이 떠오르는 메커니즘]을 지난 연재에 설명하였다. 〈붓다차리타〉(마명, AD1~2세기경)에는 이러한 '집착'이 발생하는 것을 마구니의 '화살'에 비유한다. "(집착의) 화살에 조금만 부딪혀도 미친 증세를 낸다" 또는 "(집착의) 화살의 소리만 들어도 마음은 매우 두려워하여 정신이 아득하여 본성을 잃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두려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

지금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이다. 그것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진 가공된 기억. 그런데 기억 속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다. 이는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켜야 내 생존에 이득이 된다는 생존 본능적 원리 때문이다. 두려움이란 (원시시대부터)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원초적 방어기제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잉으로 작동돼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번뇌를 유발하는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나와 남에 대한) 편견과 분별, 비난과 혐오, 두려움과 공포 등에 오염돼 있기에 오염돼 있는 줄도 모른다. 이에 (격동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먼저 자신에 대한 자애심을 키워야 한다. 자기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남에 대한 포용력도 생겨난다. 심리학적 치유의 근원이기도 한 '자기 사랑'.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재에 효과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함.)

말 그대로, '자나 깨나' 오온은 돌아가고 있다. 자고 있을 때는 의식이 개입하지 못할 뿐이고, 깨어 있을 때는 의식이 개입해 다시 가열차게 돌아간다. 그리고 집착을 통해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화하고 있다. 업식은 오염일로인 것이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친다. 석가모니 붓다의 "불방일!(게으르지 말라!)"라는 유언이 폐부에 와 닿는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⑭ 영양제 고르는 팁

영양제 상담 시 건강 검진 결과 챙겨야

두 달에 한 번씩 약국에 찾아오는 '연쇄효도마' 고등학교 동창이 있다. 5년 이상 두 달마다 부모님 영양제를 빠짐없이 주문하니, '연쇄효도마'란 극찬은 당연하거니와,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는 고마운 도반(道伴) 같은 친구다.

이번 달도 여지없이 약국을 방문한 그 친구가 이야기한다.

"부모님 영양제 좀 부탁할게!"

"그래. 얼마 전 아버님 건강 검진하셨다고 했잖아. 별다른 이상 없으셨고?"

"응. 다 괜찮으시데. 아, 맞다! 비타민 B12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따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던데? 우리 아버지가 그것도 드시고 계셔?"

"그래? 그건 다 괜찮으신 게 아니지! 지금 드시는 영양제 중에 비타민 B12가 두 종류나 포함돼 있는데. 수치가 얼마나 높게 나왔던가?"

"잠시만,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니 기다려봐."

건강 검진 결과표에는 친구 아버님의 비타민 B12 혈중 농도가 1000pg/ml를 조금 넘는 정도로 기록돼 있었다.

"비타민 B12의 정상 수치는 보통 200~900pg/ml 사이가 적정 범위인데, 이건 수치가 꽤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 몇 년째 꾸준히 비타민 B12가 포함된 영양제를 드셔서 지금은 과잉 상태로 볼 수 있으니, 중단하고 영양제 조합을 바꾸는 것이 좋을 거 같아."

"아, 과잉 상태라서 문제 될 것은 없는 거야?"

"피부 쪽으로 두드러기나 발진 같은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고, 속이 메스껍거나 설사를 좀 하실 수도 있지. 혹시 그런 불편함이 있으셨어?"

"최근 속이 안 좋거나 피부가 안 좋아졌다고 스치듯 말씀하신 적은 있는데, 요즘 술자리가 잦으시니 그 때문인 줄로만 알았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비타민 B12 과잉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비타민 B12 수치가 높은 경우는 간이 안 좋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일 수도 있어. 그럴 리 없겠지만 간혹 암이 원인인 경우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아. 다행히 건강 검진 결과를 보니 간이나 신장 수치는 정상이라 큰 문제는 없겠지만, 뭔가 불편해 하시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확인해 보길 바라."

이 경우는 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약국 상담 사례 중 하나인데,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건강 검진 결과표의 유무다.

건강 검진 결과표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생활 습관 개선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수치 교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선정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

반면 정상 수치일지라도 그 자체로 현재의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데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친구 아버님의 건강 검진표가 없었다

어려운 검진 결과 약국서 쉽게 설명
건강 상태 확인하고 추천 도움 받아

면, 비타민 B12 과잉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복용해 점점 더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요즘은 비타민 B12를 고함량으로 넣고 '신경 비타민'이라는 별명으로 너도나도 경쟁하듯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으니 말이다.

비타민 B12를 예로 들긴 했지만, 건강 검진 결과는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해 준다. 한두 장 남짓 되는 그 결과표에는 어려운 용어와 의미를 알 수 없는 화살표가 알아보기 힘들게 나열돼 있다. 만약 병원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거나,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동네 약국을 방문해 약사에게 질문을 던져 보자.

"약사님, 지금 제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또는 "저희 부모님 건강 검진 결과인데, 이 상황에 도움 되는 영양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 말이다.

당연히 검진 결과가 정상치를 벗어나 질병이라고 판단되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치료해야 한다. 하지만 질병 상태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약국 영양제가 당신 또는 부모님의 건강 관리와 유지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양제 성분 중 바나바잎 추출물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코엔자임 Q10은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홍국 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빈혈의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철분제 중 상황에 맞는 철분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간 수치가 약간 높을 때는 실리마린 성분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약국에 영양제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꼭 건강 검진 결과를 챙겨 수치를 확인하며 본인 혹은 가족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를 추천받도록 하자.

혹시 독자분들은 요즘 '책 읽어주는 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어린이 대상으로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병상에 누워 있는 어르신을 상대로 책을 읽어주는 일을 말한다. 무료 봉사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일정 급여를 받고 책을 읽어준다고 한다.

하물며 책을 읽어주는 일에도 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동네 약국에서는 건강 검진 결과를 읽어주고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심지어 돈을 받지 않고 말이다. 아, 필자는 아직 수행이 미진하여 범부에 불과한가 보다. 그런 부탁을 한 손님이 아무 영양제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떠나버리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 것 같으니 말이다.

필자는 탐(貪)에 물든 중생일지니,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조금 더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하겠다.

이만 펜을 놓고, "옴 마니 반메 훔."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사찰 찾는 모든 이들 저마다 불성 꽃피우길

템플스테이는 20년 이상 외국인들에게 전통 불교를 쉽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다양한 외국인 방문객들과 만남을 통해 사람의 본질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성애도, 이성애도, 기쁨도, 고통도…. 그래서 '세계일화'라고 하셨나 보다. 모습은 다르지만 사찰을 찾는 모든 이들의 불성이 언젠가는 꽃피우길 항상 기도한다.

그날도 사찰 일주문을 들어서며 불보살님 전에 발원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행과 말이 모두 부처님의 행이고 말씀이게 하시고,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후 2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맞기 위해 안내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참가자 중 눈에 띄는 젊은 영국 여성 2명과 그리스인 50대 여성이 있었다. 영국 여성 두 명이 조금 늦게 도착하면서 프로그램 시작이 늦어졌는데도 그리스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늦게 온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그 모습에서 자비심이 보였다. 사찰 예절을 설명하니 참가자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이내 진지해졌다.

그날도 그랬다. 사찰 안내를 위해 일주문 앞으로 가서 "일주문은 속세에서 부처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으로 '일주'라는 말에는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일주문을 들어갈 때는 항상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는 의미로 삼배하고 들어간다" 등을 설명했다. 이내 20대의 젊은 비불자 서양인들이 삼배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에게도 불성의 씨앗이 싹트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당에 들어가 삼배하는 법을 알려 주어도 이들은 마치 스펀지에 물 스미듯 그대로 잘 따라 했다. 연꽃 등(燈)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고통의 바다에 사는 우리도 올바른 삶과 수행을 통해 불성을 깨달아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는 내 설명을 들으며, 이들은 자신들만의 예쁜 연꽃 등을 완성했다.

이어 스님과의 차담 명상 시간이 되자, 조용히 들어오신 스님께서 우려낸 황차를 내어 주시며 명상에 대한 법담을 해 주시고, 명상 체험도 이끌어 주셨다. 보통 차담 시간 동안 외국인들이 스님께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스님이 되기 위해 얼마나 공부하는지', '출가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이 절에는 스님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등이다.

물론 이와 비슷한 질문도 나왔지만, 참가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물었다. "여성도 성불할 수 있나요?" 스님께서는 부처님 당시 여성 출가 금지 이야기에서 시작해 깨달음의 마음에는 차별이 없으므로 여성도 당연히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차담을 마무리하셨다. 이날 참가자들의 밝고 환한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들이 부처님 품으로 돌아오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내 환희심이 가슴 가득 차오르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그날따라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조진화 국제포교사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⑱ 트랜스휴머니즘 시대에 대하여

해답 아닌 질문에 집중하라

종교의 가르침도 대중의 구미에 맞게 쉽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세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를 따르기 전에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진리에 대한 검증이 다수결의 문제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참된 이치인 진리의 속성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야 하는 것인가? 재미를 추구하는 마음의 바탕은 자극을 원하는 번뇌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심법에 속하는 번뇌는 색법의 몸에서는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 전래의 유가행파 수행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진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은 이 딜레마에 직면해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끝이 없는 위대한 경전의 뜻을 배우고 (從無央數大經義)
그 남아 있은 감로(甘露)를 얻어 나는 마시니 (我得其餘服甘露)
병든 사람이 좋은 약을 먹는 것과 같이 비유하겠네. (譬如人病服良藥) T15, 200c21-22

'천이품(天耳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세존(世尊)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살피라는 것이다. 참된 뜻을 듣는 귀가 열려야 종교적 가르침이 완성된다. 천이를 통해 언지(言志)를 획득해야 한다. 참되고자 하는 심성을 바탕으로 절실하게 경전에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약이 입에 쓰듯 쉽지도 재미있지도 않으나, 종교적 가르침은 매 순간 자신을 경책하는 양약으로 작용해야 한다.

대승 가르침 감로처럼 여기려면
무엇보다 진리에 눈감지 말아야
재미 묻기 전 참회 마음 살펴야

대승의 가르침을 감로처럼 받아들이려면, 무엇보다 진리에 눈감지 말아야 한다. 맹목(盲目)은 무명(無明)의 동의어이기에 앞서, 면목 없음이라는 근본적 실격을 이야기한다.

감로의 맛을 감별하려거든 건강한 혀의 감각이 필요한 까닭이다. 애써 꿀이 묻어 있는 칼날을 핥으려 할 일은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법당을 드나들 때 가르침이 재미있는지를 묻기 전, 참회의 마음을 지녔는지 살펴야 한다. 경전이 쉬운가를 묻기 전, 보리심을 일으키고자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당연한 사안을 짚어 본 것은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우리 시대의 정체성 문제다. 인류사 전체와 견주어 볼 때 오늘날 우리 시대는 특유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그 문제는 바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로부터 배워야 하는 애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전해 줄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들의 경험은 오히려 장애물로 여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종과 민족 간의 첨예한 대립, 살인을 목표로 하는 무기 산업의 발달과 파생금융자본주의의 등장, 학습의 결과로 축적되는 지식이 아닌 인공지능의 활용도에 따른 정보, 첨단의 과학 기술과 생명 공학,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 등으로 야기된 문명 전환의 문제는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지질학적 시간을 도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존의 해법이 작용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이다. 이 트랜스휴머니즘 시대, 우리는 이 격변의 과도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감로의 양약이 계속 유효하려면, 어떤 선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 아니면 현 상태에서 고전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제부터는 해답이 아니라 질문에 의미가 있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

7월 14일 영국 런던 소재 주영한국문화원에서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의 대표 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 기술로 재해석한 디지털 융합 플랫폼 'K-아트 랩'을 오픈하고 첫 기획전 '타임 스페이스'를 선보였다.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들을 실감형 콘텐츠로 재해석한 시리즈의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다. 현장에서는 석굴암, 반가사유상, 감은사 사리장엄구 등을 원형으로 한 VR 콘텐츠들이 영국인들에게 선보였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15일 이상래 대전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교육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국가유산교육을 제도화한 건 전국 최초다. 해당 조례는 학교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유산교육 운영학교 △국가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 △지역사회 연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두 가지 사례를 예를 든 이유는 최근 문화유산 관련 트렌드가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다. 최근 국립박물관 전시에서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배리어 프리(무장애) 콘텐츠 등이 활발하게 선보이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굿즈 브랜드 '뮷즈'는 MZ세대라면 한번쯤은 구매하는 상품이 됐다. 이뿐인가. 유무형의 불교문화유산들을 활용한 영화, 드라마들도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5대 문화강국 실현과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개막'이란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K-컬처 확장성과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 이상 문화유산 원형의 보유와 보존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다.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산업화시키는 것이 화두인 시대가 됐다. 서 말의 구슬도 잘 꿰어 상품으로 만들어야 보배인 것이다. '불교가 한국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고'라는 자부심은 이제 좀 넣어두고, 그 보고에서 무엇을 꺼내 활용할지를 고민해 보자.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 일타강사
BTN 불교TV에 다 있다!
모든 번뇌를 날려버릴 족집게 법문

문광스님 한국학 에세이 본 매주 (화) 07:30 재 매주 (화) 19:30 / (토) 12: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소중한·나·무한행복 본 매주 (목)07:30 재 매주 (목) 19:30 / (일) 19:00
법장스님의 Together 두계단 戒 본 매주 (금)07:30 재 매주 (금) 16:00 / (일) 23:15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매주 (금) 08:30 재 매주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나의 종주, 만당 스님

특별기고



도심 스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종단과 사회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 오신 만당 스님의 열반이 마치 어제 같은데, 벌써 2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스님의 인자한 모습과 법문하시던 음성은 여전히 생생하고, 그 깊은 가르침은 가슴속에 여전히 울립니다. 생사일여(生死一如)라지만, 곁에서 더욱 배우고 따르지 못한 아쉬움과 죄송함에 스님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법우 이상 존재였던 스님

스님은 제게 법우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형님 같고 벗 같은 스님을 저는 '종주(宗主)'라 불렀고, 그렇게 평생을 마음속 의지처로 모셨습니다. 스님께 배운 자비심과 공심,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은 저를 지탱하는 근간이 돼 주었습니다.

스님과의 인연은 2012년 겨울, 영광 불갑사 무각선원에서 동안거 방부를 들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렵 스님은 불갑사 주지이자 초선 중앙종회의원이셨습니다. 복원 불사와 사중 살림, 종무 활동까지 많은 일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새벽 정진을 한 번도 거르지 않는 등 매사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부처님 법 앞에 늘 한결같던 스님의 모습은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당시 불갑사에는 별다른 소임 없이 머무는 스님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만당 스님께서는 그런 분들께 매달 보시금을 전했고, 병환이 있으면 병원에 직접 모시고 가거나 치료비를 보태는 등 살뜰히 보살피셨습니다.

제가 "스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여쭈니,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발염의하고 먹물 옷을 입고 있는 스님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다. 저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지."

그 한마디는 제 마음 깊이 남아 수행의 길을 다시 세우는 큰 이정표가 됐습니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 상임감찰 소임을 맡아 도선사에 머무르던 시절, 스님과 더욱 자주 뵙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무원 사회부 종교평화위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던 시기, 스님께서는 종단의 미래와 종교 간 화합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위원장 소임을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이후 4년간 스님은 위원회를 정비하고 대외 협력의 기반을 다지며, 종교 간 이해와 상생의 틀을 탄탄히 다져 주셨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2년간 함께 활동하며 스님의 원력과 실천을 가까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수행 전법 행한 스님

스님과 인연은 전법 현장에서도 또 다름 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2015년, 제가 성불사 주지 소임을 맡았을 당시 사찰은 낡고 신도도 적어 사찰 운영은 물론 전법조차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스님은 눈발 날리는 겨울날, 김장통 여섯 개를 싣고 사찰을 찾으셨습니다. "절에 김장은 해 놨냐"는 따뜻한 물음은 그 어떤 물질적 도움보다 큰 위로가 됐습니다. 스님의 걱정과 관심은 다시금 전법 의지를 세우는 힘을 주었습니다.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으로서도 모범이셨습니다. 스님은 늘 "승가가 바로 서야 부처님 법이 바로 선다"고 강조하셨고, "종단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늘 공심(公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입적 하루 전 오후 6시 통화에서도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걱정하셨고, 그날 저녁 늦게까지도 재가불자들을 위해 불교대학 강의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수행과 전법을 놓지 않으셨던 스님은 참된 수행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나의 종주' 만당 스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스님의 말씀과 삶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남은 수행과 전법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만당 스님! 스님의 삶과 원력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정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속환사바해 다시 한번 광도중생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깨달음을 글로 배울 수 있을까

현불논단



지승도 명예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우리는 가시 세계만 본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볼 수도 헤아릴 수도 없다. 불가사의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양자역학 과목 한두개만 들어도 감이 온단다.

양자역학의 원조인 붓다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다. 정확한 뜻과 문법만 익힌다면, 누구라도 진리의 세계를 헤아릴 수 있다. 안타깝게도 논리가 실종된 불교가 성행하고 있다. 다르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략된 깨달음은 꿈속 잠꼬대에 불과하다. 언어도단의 진리를 언어로 재단하는 것이 가능할까? 양자역학이 논리를 통해 양자컴퓨터로 거듭났듯이, 연기와 공성도 올바른 개념만 습득한다면, 누구나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다. 모든 언어와 개념이 그러하듯, 매달리면 덫이지만, 바로 알면 뗏목이다.

"일체개고라면 바윗덩이도 고(苦)를 느끼는가?" GPT에게 물었다. "맞습니다. 일체는 유위법으로서, 바윗덩이도 조건 지어진 유위법이기에 고를 겪습니다."

사실 필자도 그렇게 알았다. '일체개고'란 한역 번역상 오류로, 정확한 문법으로는 '유루개고'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랬다. 마음을 가진 유정

다르마에 대한 바른 이해 없는
깨달음은 꿈속 잠꼬대에 불과
연기·공 개념 알면 삶 적용

물은 유루, 즉 번뇌를 남기기에 반드시 고를 겪는다는 얘기다. 바윗덩이는 마음이 없는 무정물이기에 고를 겪지 않는다. GPT 오류라기보다는 다르마에 대한 보편적 논리데이터가 부족한 탓이다. 일체가 '무상·고·무아'라고 통쳐서 이해하면 다르마에 대한 착각과 오해만 가중된다. '제행무상, 유루개고, 제법무아'라는 올바른 문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일체법에는 유위법과 무위법이 있다. 일체법은 무아, 즉 공성을 속성으로 하기에 '제법무아'다. 이 중 유위법만은 조건 지어진 바 무상하기에 '제행무상'이다. 이 중 유루의 존재만은 반드시 고를 겪기에 '유루개고'다. 이처럼 분명한 논리로부터 착각 없는 불교는 시작된다.

깨달음도 논리로 풀어보자. 마음은 대상을 아는 작용으로서 유위법이다. 한편 깨달음도 마음이 하는 일이기에 유위법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마음이 아니라, 공성이다. 공성이라는 뭔가 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법의 무실체성, 무자성의 확인이다.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실체적 존재 없음이 대상이다. 다시 말해 연기적 존재 아닌 것이 없음을 확증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최후의 과학이라는 양자역학은 무위법마저 설명할까? 물질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고전역학과 달리, 양자역학은 관찰의식이 배제된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유정물마저 포섭하는 유위법의 상호의존성을 증명했다. 위대한 통찰이지만 이 또한 세속법에 머문다. 조건 너머, 논리 너머, 언어 너머, 마음 너머, 궁극의 진리 무위법이 남았기 때문이다.

社 說

스님 독립운동가의 삶 찾고 기억해야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암울한 어둠 속에서 조국 독립의 빛을 밝힌 독립운동가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행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독립운동에 앞장선 스님들이다.

불교계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내내 나라의 위기를 좌시하지 않고 민족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백용성 스님과 만해 한용운 스님, 백초월 스님, 운허 스님과 같은 스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불법을 지키고 민중을 계몽하며 자주독립에 힘을 보냈다. 특히 사찰을 거점으로 민족교육을 실천하고, 불서 번역과 포교 활동을 통해 민족정신을 지키는 한편,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군자금을 모금해 전달하며 독립운동의 숨은 버팀목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불교계 독립운동가는 몇몇 스님에 한정되어 있다. 대중들에게 덜 알려진 것은 물론 학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헌신적으로 앞장선 스님들이 많았지만, '종교인'이라는 인식에 갇혀 '독립운동가'로서의 진면모를 제대로 연구,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본지가 'AI로 되살린 스님 독립운동가' 특집을 마련한 이유이기도 하다.

스님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독립운동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동국대 산하 학교 '선연'에 주목하자

현재 불교는 '출가 절벽 시대'를 맞이했다.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출가자 수는 2000년 528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2024년에는 81명이 출가했다.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연간 출가자 100명 선이 붕괴된 것이다.

출가자 감소는 한국사회의 탈종교화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맞물린 현상이지만, 계층포교의 붕괴 등 포교 실패도 주요 원인이다.

최근 '힙한 불교'가 MZ세대에게 어필되며 조계종은 젊은 신도를 확보하고 출가자를 늘리기 위해 대학 불교동아리를 지원하고 군포교, 단기 출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종책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동국대 산하 학교에서 운영되는 소년 출가자 진흥 프로그램 '선연을 찾아서'를 주목할 만하다. 실제 17명의 학생이 출가를 결심해 소년 출가자 확대에 일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1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산하 학교 삭발식에서도 출가 의사를 가진 4명의 학생에 대한 삭발식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 행자들은 '선연'을 통해 출가를 결심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선연'은 단순한 힐링을 위한 템플스테이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스님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나아갈 길을 고민해 출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다. 삶의 방향을 놓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불교가 전할 것은 '방향'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7월 23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7월 2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7월 2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7월 23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마치 아무것도 신지 않은 것처럼, 땅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다.

이제, 당신의 발에도 진정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메쉬 어싱(접지) 수행화

자연과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 지금 바로 느껴보세요!



특징 1 **뛰어난 통기성의 메쉬 소재** – 발이 숨 쉬는 듯한 쾌적함

특징 2 **맨발에 가까운 편안함** – 놀랍도록 가볍고 유연한 착화감

특징 3 **자연 통풍 구조** – 쾌적함을 극대화하는 설계

특징 4 **세련된 디자인** – 그레이 색상과 다크 그레이 솔의 조화

특별혜택

지금 구매하시면,

정가 80,000원 ⇒ **특별 할인가 65,000원**

어싱 효과를 더욱 높여줄 '어싱 양말'을 사은품으로 함께 드립니다!
(사이즈 : 225mm~280mm, 색상 : 미들 그레이)

하루 종일 답답한 신발 속에 갇혀 있던 당신의 발을 해방하세요.

'메쉬 어싱 수행화'는 맨발로 걷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발을 감싸는 부드러운 메쉬 소재는 뛰어난 통기성으로 언제나 쾌적함을 유지해주며,
놀랍도록 가벼운 무게는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땅과 나를 연결하는 '어싱(Earthing)' 기술로, 걷는 내내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1 벨크로 타입으로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 맨발로 걷는 느낌을 최대한 주는 3mm의 탄력있는 밑창으로 발 건강을 향상 시킵니다.
3 어싱 신발에는 가죽 인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발 감각에 익숙치 않은 분을 위한 것이니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45,000원 (무료배송)

사계절용(생활방수)

※ 사은품 : 어싱 양말

지금 바로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www.mahamall.co.kr

검색창에 '메쉬 어싱 수행화'를 검색하세요!


베이지▶


블랙▶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어싱 샤모아



특판가 80,000원

사계절용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